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7월 25일(음력 6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638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정례화 여부 '불투명'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성지 정기순례가 난관에 봉착했다.

천태종은 7월 26일 본격적인 개성 영통사 정기성지순례를 앞두고 순례단을 모집 중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월1회 제한을 풀지 못할 경우 북한과 '주 2~3회 방문'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정기순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7월 17일 "통일부가 주 2~3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성지순례(안)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월 1회 실시한다고 확정한 뒤 언론에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통일부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불교도들이 힘을 한데 모아 성지순례가 원만성취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지면안내

종합 / 현존 最古 '보협인경' 발견 ····3
특집/ 〈벽암록〉 완역기념 특강 중계 ····4
기획좌담/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12

여름특집섹션

올 여름 이 절엔 꼭 가보세요 ····23
오솔길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책!책! ····24
본지 논설위원이 추천한 불서 8권
올 여름 꼭 보고싶은 전시 ····25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展
바다에서 찾는 깨달음의 길 ····26
파도소리 들으며 '듣는 성품' 깨닫는 법



무더위 연꽃향에 날리다

7월 15일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 주변에 들어선 대단위 연꽃농장을 찾았다. 연꽃향을 따라 한가로이 연밭을 걷는 가족들의 얼굴에선 이미 무더위가 사라진 듯 하다. 관곡지(경기도 시흥시 향토유적 8호)는 조선 세조 때 농학자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연꽃씨를 들여와 최초로 씨를 뿌린 곳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이명박씨 서울 봉헌 발언 해명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7월 19일 열린 검증청문회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서울 봉헌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봉헌은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서울 봉헌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4년 5월 한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 이름으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남동우 기자

"마음을 쉰다는 건 애착 버리는 것"

山寺에서 띄우는 여름 편지

지리산 국사암 입구 쌍계연지(雙磎蓮池)에는 요즈음 연꽃이 한창입니다. 백련과 홍련이 다투듯 피어나는 통에 공양 후에는 발길이 저절로 연못을 향하게 됩니다. 백련은 청초하게 기품이 있는 반면 홍련은 화려하게 아름답습니다. 그 향기 또한 일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잎 위의 초롱초롱한 물방울입니다. 새벽이슬이 맺혀 이루어진 물방울들이 커다란 연잎 위에서 또그르르 굴러다닙니다. 툭 치면 치는 대로 빙글빙글 돌며 구릅니다. 재미있어 자꾸만 쳐보게 됩니다. 툭! 때구르르… 툭! 때구르르…

연잎에 착 달라붙지 않고 흔드는 대로 굴러다니는 물방울을 보면서 마음을 쉰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애착하는 마음을 쉬는 것이고, 애착하지 않으므로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연(緣) 따라 둥글둥글 놓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계(逆境界)는 역경계대로 순경계(順境界)는 순경계대로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쉬는 것이 곧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 착(着)이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 몸뚱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몸뚱이가 사라진다고 해서 몸뚱이 착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뚱이 착이 쉬어야 몸뚱이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평생 이 몸뚱이가 '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심지어 해골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세존께서 기바(耆婆)와 함께 무덤사이를 지나시다가 다섯 개의 해골을 보시고 그 중 한 해골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 태어난 해골인가?"

"그는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 해골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 태어난 것인가?"

"그는 축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하여 각각 아귀, 인간, 천상에 태어났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몇 리를 더 가서 한 해골을 보고 두드리면서 물으시기를 "이것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시니, 기바가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라한의 해골이니라. 태어난 곳이 없느니라."

몸뚱이는 사라져도 몸뚱이 착이 남아서 윤회를 받습니다. 지옥고를 겪는 것도 천상낙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존재 가운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행위'가 '나'를 결정짓습니다. 결국 매 순간을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연잎위의 이슬방울처럼 머무르지 않는데 있습니다. 툭! 때구르르… 툭! 때구르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좌선할 땐 좌선할 뿐, 죽을 땐 죽을 뿐!



월호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 763-2980
종로, 서초, 방배, 송파, 한산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경주 보광사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社 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간화선' 新 관광브랜드로…

조계종 대규모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통합정보센터 건립

간화선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강원도 고성에 프랑스 플럼빌리지 같은 대규모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를 건립하고, 서울 조계사 인근에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국제잼버리 야영장 3만3000㎡ 부지에 연건평 1만1600㎡ 규모로, 3년간 190억원이 투입돼 세워진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간화선을 체험할 수 있는 참선센터와 교육 및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 건립은 선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정신세계를 찾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관광자원화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불교 간화선을 한류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연계된 것이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61억원을 들여 설계와 토지 인허가 작업을 한 다음 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 11월 1단계 준공 후 넓은 부지를 활용해 규모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부지 선정과 관련 종훈 스님은 "금강산과 비무장지대가 인접해 있어 남북통일이 됐을 때도 고려했다"며 "일부에서 서울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는 수행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사업단은 이 외에도 공주 마곡사 인근에 건립중인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도 권역별로 템플스테이 센터를 단계적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71번지와 74-15번지에 총 579㎡ 규모로, 2년간 85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연면적 2975㎡에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템플스테이 복합문화시설과 관광종합안내센터, 템플스테이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국제 홍보와 전략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템플스테이와 한국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사업단은 올 8월까지 설계 및 건축허가, 시공사 선정 등을 끝낸 뒤 9월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작해 2008년 4월 개관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금강경 통일본 편찬 해야"

"판본은 거의 무시돼 있으며, 심지어 특정인이 붙여 놓은 현토본의 경우 그 현토까지도 경문의 일부로 간주돼 독송되고 있다. 동일한 출판사가 발행한 경우에도 개정판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김호귀 동국대 강사는 7월 19일 열린 '금강경 편찬을 위한 제1차 세미나'에서 "구마라집본의 경우 거의 동일본으로 전승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본이 되는 고려대장경본에조차 많은 오자, 탈자, 내용의 생략 내지 첨가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강사는 "〈금강경〉의 표준본을 염두에 둘 경우 어떤 모습으로든지 통일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에 바탕해 현대적인 한글본 금강경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동우 기자

울릉도서 회당문화축제 개최

진각종은 8월 1~3일 울릉도에서 '비상(飛上) 코리아'를 주제로 제7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기간동안 매일 저녁 7시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울릉도! 모두가 하나되어' '윤도현과 함께하는 독도아리랑' 등의 관광테마음악회가 열린다.

체험마당은 8월 1~3일 도동항 소공원에서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등의 행사가 준비되며, 특별기획마당으로 2~3일 양일간 우산국 퍼레이드, 전통장엄등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김원우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7호 5면 불모 박정자 선생 기사에서 박정자 선생은 단청장이 아니라 단청장 보유자 후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 '파면'

진상조사위 "채용과정에 외압·비리 없었다"밝혀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한 신정아(35) 교수를 파면키로 하고 오는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향후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7월 20일 법인 이사회 종료 후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인 한진수 부총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장은 "홍기삼 前 총장과 영배 이사장 스님 등을 조사한 결과 신 교수의 채용 과정에 아무런 외압이나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홍기삼 前 총장의 지나치게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며 "신 교수의 학력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 · 석 · 박사 성적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부총장은 "신 교수가 졸업했다는 캔자스 대학도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재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점 미달 등으로 실제로는 3년을 다니다 중퇴했다"며 "석사 학위 취득 사실도 확실히 없으며, 학위증명 확인서 및 확인 팩스 표지는 예일대 서식이 아니고 이에 대해 예일대측이 계속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장은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라며 "7월 18일 신정아 교수로부터 우편물이 도착됐는데 내용은 예일대 입학허가서와 도서관 이용 자료 등"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신정아 조 교수를 특별채용 했던 홍기삼 前 총장이 쓴 '동국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4쪽짜리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홍 총장은 문서를 통해 "총장 재임시절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려는 일념으로 인사에 임했다"며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려다 총장과 대학 행정당국이 어처구니없이 속은 사건이지 어떤 은밀하고 부도덕한 거래가 개입된 채용 비리 사건이 결단코 아니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오영교 총장은 기자 회견 서두에 "이번 사건과 관련 동국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한진수 동국대 진상조사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신정아 조교수 박사학위 위조와 관련, 진상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 교수 사건 의혹 명백히 규명해야"

조계종 종책모임 성명서 잇달아

동국대 신정아씨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진상조사위 구성과 이사장 영배 스님 등 이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무차회는 7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영배 재단이사장이 직접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재단과 학교 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무차회는 이번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종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신정아씨에 대한 동국대 차원의 검찰 조사 의뢰 △영배 이사장 스님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책임 있는 결단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화엄회와 무량회도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사장 영배 스님 등 관련자 공개 사과 △장윤 스님 이사직 원천 복직 및 재단임원진 전원 사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칠석, 백중,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종립학원 동국대학교 신정아 사건에 대한 무차회입장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종립학원 동국대학교는 신정아 교수의 불법 채용 사건으로 인해 일파만파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신씨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고자 했던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이사진 전원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에 정식 고발됨으로써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립학원 동국대학교의 감춰진 '의혹'과 무능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수 임용에 반드시 필요한 학원 구성원의 검증 절차를 무시한 '특별채용제도'도 그러하며, 2005년 신씨 임용 당시부터 불거진 관련학과 교수들과 재단 이사진 내부의 의혹제기를 학교와 재단이 철저히 무시한 점, 의혹을 제기한 재단 이사를 해임 조치한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은 사태를 학교와 재단이 자초한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적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영배 재단이사장이 직접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재단과 학교 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체 진상 조사 역시 신씨 임용의 직접 당사자인 전임 총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인해 의혹만 부풀리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중진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냉엄한 현실 앞에 불거진 이번 사건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종립학원 동국대학교의 명예와 위상 뿐 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의 씻기 힘든 오욕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와 욕망을 좇는 한 개인의 비법적 행각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도록 우리 내부의 폐습과 안일한 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경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이같은 위기를 사사로운 정쟁의 관계로 이해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사건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종단 구성원 모두는 깊이 자각하고 현하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중지를 모아내야합니다. 이에 종단의 대의기구이며,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원 모임인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중앙종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국대학교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정성을 의심받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종립학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는 공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씨 임용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 종도들 앞에 여과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신정아씨에 대한 동국대학교 차원의 검찰 조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7월 16일 동국대학교 재단측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듯이, 학교와 재단측은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의뢰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명징한 해결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 영배 이사장 스님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전 과정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영배 이사장 스님을 포함한 재단 이사진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립학원의 최고책임자인 영배 이사장 스님 이하 재단 이사진의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문중 -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선출해야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 불거졌지만 동국대학교 이사진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단과 종립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뿌리 깊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그 출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능력 있는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무한한 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51(2007)년 7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차회 일동

생명평화학교 기금 마련 전시

대구 보현암 주지이자 화가인 선진 스님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불교회관 1층에서 '제2회 앞산 살림을 위한 진언행자 옴 부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앞산 관통 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앞산 달빛 고운 마을연대'와 '앞산 생명평화학교'를 건립하는데 기금을 보태기 위해 열렸다. 옴마니반메훔 10만자 서사 원력을 세우고 14년째 수행 중인 선진 스님은 이날 전시에서 21가지 부채를 선보였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부산 반야원 환우 돕기 바자회

부산 범어사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이 7월 18일 환우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에는 반야원 신도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지원하는 환우들에게 전액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 삼존좌상 등 4점
보물 지정 예고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금강요집경> <주범망경> <불조삼경>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대웅전의 주불로, 130㎝ 높이의 본존상과 좌·우 협시보살상으로 이뤄져 있다. 조선 현종 2년(1661) 조각승 희장 스님이 제작했으며 정확한 존상 명칭 등이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현재 범어사성보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금강요집경> 등의 인쇄본은 보존상태가 좋으며 <금강요집경>은 조선 전기에, <주범망경>은 고려 말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성미 기자**

현존 最古 천년전 '보협인경' 발견

안동 보광사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유물서 확인

1007년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협인다라니경' 인쇄본과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안동 보광사(주지 혜명)에서 발견됐다. 보협인다라니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6호)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인쇄본이며,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줄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범서총지집' '범자다라니' 등의 인쇄본과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저고리 등 고려시대 인쇄·의복사를 밝혀줄 문화재들이 대거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산하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범하)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함께 추진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보광사를 조사하던 중 지난 5월 29일, 목조관음보살상의 실측을 위해 불상을 옮기다 복장 유물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하게 됐다.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문화재조사팀 박상준 팀장은 "복장유물의 경우 인위적인 개봉이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불문율이지만, 이번 경우는 유물이 흘러내림으로써 복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상실됐고,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동 보광사에 모셔져 있는 13세기 목조관음보살좌상(오른쪽)과 복장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보협인다라니경 인쇄본(왼쪽 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고려시대 인쇄본들을 범하 스님(문화유산발굴조사단장)과 수경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조사 과정에서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로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이하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해 고려시대 인쇄물과 저고리 1점 등 총 10종 193점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고려시대 인쇄물들은 인쇄 후 잘라서 연결해 책으로 만들기 전의 형태로, 인쇄문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다.

보협인다라니경은 크기 32×45㎝이며 총 23장이 확인됐다. 고려 목종 10년(1007년) 총지사(摠持寺)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고문서 기록분야)은 "보협인다라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변상도 역시 한국 판화미술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작품"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복장에 함께 안치됐던 저고리에 대해 박윤미 문화재전문위원(복식사)은 "저고리 소재는 비단인 견사(絹紗)이고 네 올이 얽혀 직조된 라(羅)로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복장일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광전의 주불로 모셔져 있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그간 고려시대 양식으로 추정돼 오다 이번 조사로 13세기 작품임이 확인됐다. 두껍게 발린 개금으로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없던 보살좌상의 보관(寶冠)을 X-ray 촬영한 결과, 고려시대의 정밀한 공예 기법이 드러난 것이다. 개금은 약 10여 년 전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범하 스님은 "이번 조사는 13세기 불상과 목판인쇄술 연구에 큰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앙의 대상인 불상과 복장유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종단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물은 현재 1차 조사와 응급조치를 마치고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으며,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앞으로 일련의 조사를 완료한 후 금년 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영남지역 '범패' 음반 출시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십층석탑 해체 복원 보고서 발간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영남지역의 범패 음악을 담은 '영남범패' CD와 경천사십층석탑 해체 복원 보고서인 <경천사십층석탑>을 펴냈다.

'영남범패' 음반(1종 5장)에는 1969년 11월 부산의 국청사에서 녹음된 범패 음악이 수록돼 있다. 녹음은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가 맡았으며, 소리의 주인공은 국청사 주지 어장(魚丈) 김용운(?~1973) 스님이다.

용운 스님은 1972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범음·범패' 종목이 지정되자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쉽게도 이듬해 1월에 열반했다. 이후 '범음·범패'는 부산시 무형문화재에서 해제됐다. 음반에는 영산재(靈山齋) 과정에서 불리는 범패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경천사십층석탑(국보 86호)의 해체복원 과정을 담은 조사보고서 <경천사십층석탑>에는 10여 년 간 진행된 석탑의 정밀보존처리 및 복원 과정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돼 있다. 1권에는 해체에서 복원까지의 과정을, 2권에는 관련 연구논문을, 3권에는 부재별 상세자료를 담았다.

고려시대 경기도 개풍 경천사에 세워졌던 경천사십층석탑은 현재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전시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노컷뉴스 역삼청소년수련관 기사 허위"

파라미타청소년協, 정정보도 요구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사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는 "지난 7월 17일자 기독교방송 노컷뉴스에 보도된 '청소년수련관에 동원된 정체불명 폭력배' 제하의 기사가 사실보도 원칙은 물론 최소한 현장 확인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로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법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파라미타는 "노컷뉴스가 기사에서 호도한 것처럼 수련관 인수인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심각한 반발이 있지 않았으며, 기자가 인수인계 당시(새벽 5시 30분)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가식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라미타는 "기독교방송의 사과와 정정보도, 취재기자 문책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한편 역삼청소년수련관은 18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양주 석굴암 천일기도 입제대법회

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주지 도일)은 7월 29일 오전 10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제3차 천일기도 입제대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날부터 2010년 4월 24일까지 1000일간 일체 산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용맹기도정진할 예정이다.(031) 826-3573 **김원우 기자**

"대학생 불자들 제주로 옵서예"

'한국불교 1600년 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는 8월 9~12일 제주도 약천사, 관음사, 법화사 등 제주지역 일대에서 '제26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파트너! 당신이 법우(法友)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8월 8일 오후 6시 약천사에서 입제식이 봉행되며, 9일 오후 7시에는 제주 4·3사건 주동자인 김봉현씨의 '제주불교와 문화' 강의와 법등별 시간이 진행된다. 10일에는 어리목으로 이동해 '법우와 함께하는 한라산 산행'이 마련되며, 11일에는 탑동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체험마당 및 대학생 문화제 '유니붓다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생태 체험 학습, 제주 방언 배우기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조용석 회장은 "전국의 대학생 법우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남으로써 지역의 불교를 이해하고,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시키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I love Buddha / 부처님의 법비

용정운(www.zentoon.com)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대우투자증권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종합FP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전화번호와 궁합·자동차번호와 궁합·날짜로 보는 운명·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록

화제의 신간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볼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졌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질 않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사고들……. 8·15광복, 6·25동란,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代) / Fax. 02-3142-4901 •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광스님〉 T. 032-665-8472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벽암록>완역 기념 지현 스님 특강 지상중계

최근 국내 최초로 <벽암록> 완역본이 출간돼 불교계 안팎의 찬탄을 받았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을 10년이란 시간 동안 번역해 다섯 권의 책으로 펴낸 지현 스님이 7월 19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독자들과 만났다. 본사가 주최한 '벽암록 완역 기념 역자초청 특강—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에는 1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벽암록>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강의를 요약했다. <편집자 주>


종문제일서 <벽암록>을 완역한 지현 스님은 특강에서 <벽암록>의 가치와 선의 정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생각의 흐름을 막지마라

선(禪)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인 드야나(dhyana)를 음역(音譯)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중국인들이 번역하기를 사유수(思惟修)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생각, 수는 생각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은 곧 번뇌 망상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개울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과 감정이 막혀버리는 것이 번뇌 망상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곧 번뇌 망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려라, 감정을 버리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나쁜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 끼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일이십년 전 미국에는 명상 붐이 일었습니다. 수많은 명상법이 인기를 얻었고, 서양인들은 명상을 통해 본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상의 가르침은 결국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립문자라고 한 것도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것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부정한다는 것은 언어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감정의 마지막 매개 수단인 언어를 통해 생각을 잡아보자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러한 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벽암록>입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듯이 선을 위한 지침서인 벽암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예전에는 <벽암록>을 불 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산에 오르지도 않고 지도를 보고 외우는 병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에 다시 <벽암록>을 복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핀트' 맞추기

그렇다면 선에서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생각과 감정의 핀트가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서 본다는 것을 느끼는 것, 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 느끼는 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이러한 자각 기능의 평형을 잡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에서의 공안 안에는 딱 하나의 문(門)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조사선의 본뜻이 무엇입니까"하니 조주 스님이 "뜰 앞의 잣나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호입니다. 선에서의 공안은 깨달은 선사가 말하는 것의 표면적인 의미 말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공안을 자꾸 파고들면 사사건건 의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공안 참구라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놓고 종이에 빛을 쬐면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서 종이가 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나자

<벽암록>은 선의 1700공안 중 공부하기에 적절한 공안 100개를 뽑아 하나하나에 주석을 달고 평론을 따로 붙여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無)'자 공안 하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 화두가 나왔을 당시는 공안이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공안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을 때 무자가 나온 것입니다. 공안도 어떤 공안을 참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뚫어진다. 이러한 것을 <벽암록>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길 안내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식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때 <벽암록>을 봐야 합니다. <벽암록>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는 자세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의가 끝나자 불자들이 지현 스님에게 박수를 보냈다.

독자들의 질의와 답변

Q 생각의 근원과 생각의 흐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A 생각의 근원은 생각이 나오는 곳, 즉 직관입니다. 생각의 흐름은 직관이 파도치는 것입니다. 직관이 부딪치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근원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으로 끌려가는 것은 윤회고, 그것을 주시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생사해탈 한다는 것은 사고와 감정은 흐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Q 선정삼매란 무엇입니까?

A 선정은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욕심도 없고 좋은 것 봐도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선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데 집착은 없는 경지가 바로 선정입니다.

Q <벽암록>에 혹 과장된 부분이나 빼고 읽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A 물론 있습니다. <벽암록> 제일 앞에 나오는 '수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과장이 심합니다. <벽암록>을 복간할 때도 이 부분은 '과장이 심하므로 빼야 한다'고 적었고, 저도 번역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Q 화두를 참구할 때 진언이나 자기가 만든 화두로 삼을 수는 없습니까?

A 진언은 집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만든 것은 공안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인정됐고, 그것에 대한 답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의문은 자기도 가보지 못한 경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확한 나침반이 없는 것이지요. <벽암록>에 있는 공안 중 하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염불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염불선도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부르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공안이 됩니다. 생각이 다하고 다해서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이것이 염불선입니다. 선에서는 공안을 통해 깨닫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공안이 됩니다. 깨달은 이의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가 공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Q 꼭 공안을 가져야 선이 되는 것입니까?

A 그렇진 않습니다. 고요히 앉는 자체로 수행인 묵조선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만히 앉아 주시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후대에 공안을 개발한 것입니다.

Q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아라한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이론과 수행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A 당시에는 누구나 영성이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성제와 연기법 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번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알음알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공안 같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현 스님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당선. 73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이후 인도 · 네팔 · 티베트 등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편 · 저 · 역서로는 <선시(禪詩)>, <선시감상사전><바가바드 기따><우파니샤드><반야심경><숫타니파타><법구경><불교를 찾아서><선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정리= 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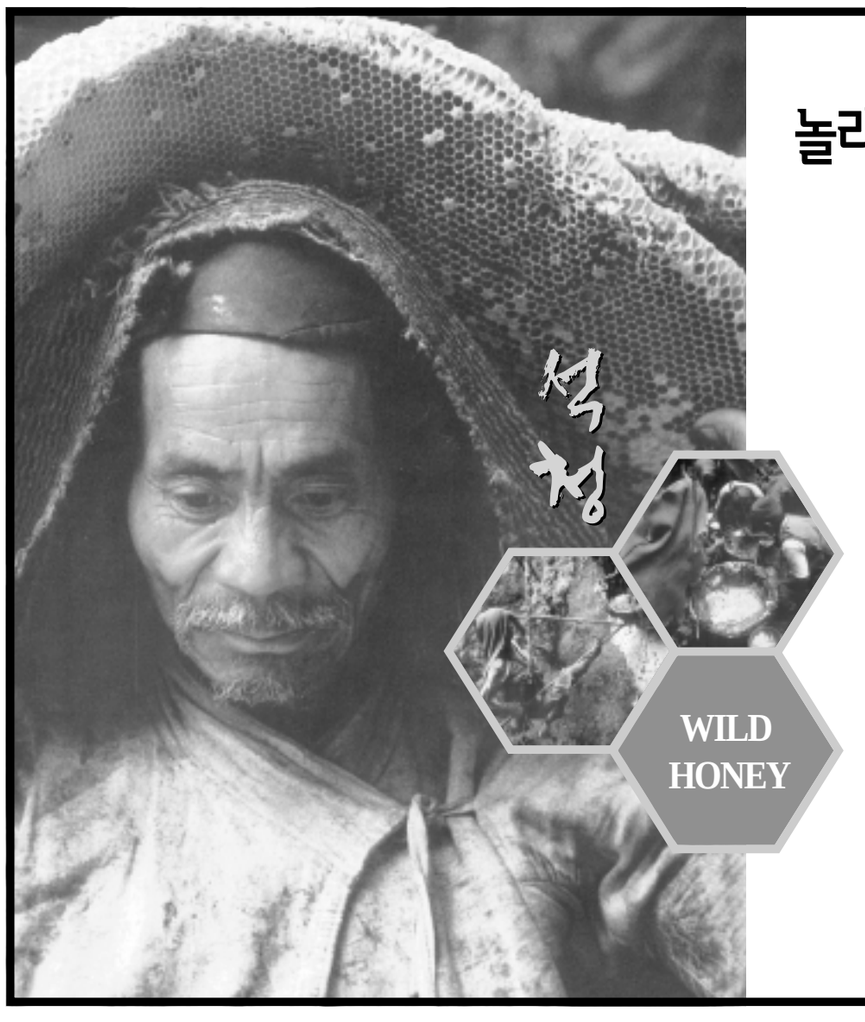
지현 스님이 말하는 벽암록은?

모조리 불태워진 후 되살아난 '부활의 책'

<벽암록>은 선종(禪宗) 문화의 총결산이다.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로 시작하여 언어문자를 통한 탐구[不離文字]로 그 절정을 이룬다. 당대에 이미 선승들의 문집인 <조주록> <임제록> 등의 선어록(禪語錄)이 출간됐고, 송대에 이를 근거로 <조당집> <전등록>과 같은 방대한 공안사서(公案史書)가 출간됐다. 이후 본격적인 공안의 주석서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벽암록>(전10권)이다.

설두 중현(雪竇重顯)이 <전등록> <조당집> 등에 나오는 1700칙(則) 공안 가운데 100칙을 골라, 하나하나에 게송(偈頌)을 달았고, 원오극근이 각칙(各則)에 수시(垂示, 서문) · 착어(著語, 촌평) · 평창(評唱, 비평과 해석)을 덧붙여 이루어졌다.

<벽암록>은 깡그리 불에 탔다가 약 190년 뒤에 되살아난 '부활의 책'이기도 하다. 원오의 제자 대혜종고(大慧宗?)는 <벽암록> 판각과 잔본을 모두 회수해서 소각해 버렸으나 그로부터 약 190년 뒤에 거사 장명원에 의해서 복간됐다.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9> 선종 각 종파의 법맥과 가풍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사에서 '면벽구년(面壁九年)'을 하고 난 뒤에 성립된 선종은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粲)을 거쳐 4조 도신(道信) 스님으로 이어진다. 도신의 제자인 법융(法融) 스님이 공(空)의 원리를 깨달아 우두산(牛頭山)에서 선법을 선양하여 우두종(牛頭宗)이 생겼다. 그리고 5조 홍인 대사의 문하에서 북종과 남종으로 갈라져 신수 계통은 북종선이 되고 6조 혜능의 계통은 남종선이 되었다. 남종선(南宗禪)에서 다시 다섯 종파로 갈리게 되니 임제 · 위앙 · 조동 · 운문 · 법안종이 생기게 된다. <선가귀감> 78장에서 서산 스님은 말한다.

조사 스님들의 종파에는 다섯 갈래가 있으니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위앙종, 법안종이다.

임제종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전한 가섭으로부터 33대가 되는 육조 혜능 대사로 이어지는 법맥이니 그 법맥은 남악 회양(南岳懷讓 677-744), 마조 도일(馬祖道一 708-788), 백장 회해(百丈懷海 749-814), 황벽 희운(黃蘗希運 ?-850?),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 흥화 존장(興化存獎 ?-925), 남원 도옹(南院道顒 ?-?), 풍혈 연소(風穴延沼 896-973), 수산 성념(首山省念 926-993), 분양 선소(汾陽善昭 947-1024), 자명 초원(慈明楚圓 987-1040), 양기 방회(楊岐方會 992-1049), 백운 수단(白雲守端 1025-1072), 오조 법연(五祖法演 ?-1104),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35), 경산 종고(徑山宗杲1089-1163)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중국의 임제종은 물론 우리나라 선종에서도 임제종을 선법의 정통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6조 혜능 대사 이후에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하택파와 청원파로 나뉘어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시비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보조 스님이나 보우 스님이 대혜종고 스님의 화두법을 받아들여 '임제종풍'을 '조사선'의 최고봉으로 삼은 뒤 오늘날까지 임제종을 선법의 정통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조동종은 육조스님 아래에서 갈라진 곁갈래이니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 석두 희천(石頭希遷 700-790), 약산 유엄(藥山惟儼 751-834),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1),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 조산 탐장(曹山耽章 839-901), 운거 도응(雲居道膺 ?-902)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운문종은 마조의 곁갈래로서 천왕 도오(天王道悟 748-807), 용담 숭신(龍潭崇信 ?-?), 덕산 선감(德山宣鑑 780-865), 설봉 의존(雪峯義存 822-908), 운문 문언(雲門文偃 ?-949),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 천의 양회(天衣義懷 989-1060)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위앙종은 백장의 곁갈래로서 위산 영우(潙山靈祐 771-853), 앙산 혜적(仰山慧寂 840-916), 향엄 지한(香嚴智閑 818-914), 남탑 광용(南塔光涌 ?-?), 파초 혜청(芭蕉慧淸 ?-?), 곽산 경통(山景通霍 ?-?), 무착 문희(無著文喜 820-899)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법안종은 설봉의 곁갈래로서 현사 사비(玄沙師備 835-908), 지장 계침(地藏桂琛 867-928),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 천태 덕소(天台德韶 891-972),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 용제 소수(龍濟紹修 ?-?), 남대 수안(南臺守安 ?-?) 같은 선사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5조 홍인 대사 문하에서 6조 혜능은 南宗禪으로 남종선은 다시 임제 · 위앙종 등 5개 종파로 갈려

임제종 가풍은 맨 손에 칼 한 자루를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삼현(三玄)과 삼요(三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본 뜻을 판단하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용인지 뱀인지를 알아낸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보검으로 썩은 나무에 붙어사는 허깨비들을 제거하고 위풍당당한 사자의 위엄으로 여우와 살쾡이의 심장과 쓸개를 남김없이 찢어발긴다. 임제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靑天霹靂靡 平地起波濤.
푸르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평평한 땅에서 큰 파도가 일도다.

조동종 가풍은 방편으로 오위(五位)를 열어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두루 잘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혜의 보검으로 잘못된 모든 견해를 자르니 묘하게 이 법이 잘 통하여 온갖 집착을 끊는다. 소리와 모습을 갖춘 이 세상이 있기 전 눈 가득히 빛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유리병 속에 비친 바람과 달이다. 조동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佛祖未生空劫外 正偏不落有無機.
부처님과 조사 스님 나오기 전 아주 먼 옛날부터 정(正)과 편(偏)으로 유(有)나 무(無)의 틀 속에 떨어지지를 않는다.

운문종 가풍은 칼날 위에 길이 있고 꽉 막힌 쥘벽에는 문이 없다. 드러난 갈등을 뒤집어 없애고 늘 일으키는 알음알이를 단숨에 잘라버린다. 번개처럼 빨라 미처 알아챌 수 없고 용광로처럼 뜨거우니 어찌 머물 수가 있겠느냐? 운문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拄杖子跳上天 盞子裡諸佛說法.
주장자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니
술잔 속의 부처님이 온갖 법을 설하도다.

위앙종 가풍은 스승이 부르고 제자가 화답하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사는 것과 같다. 옆구리 글자로 높은 경계를 드러내고 방장실에서 학인들 공부를 점검함에 사자의 허리가 부러지는구나. 온갖 잘못된 견해를 한번에 끊어 내니 입이 두 개가 있어도 말할 혀가 없다. 구슬 속 아홉 구비 구불구불 난 구멍에 실을 꿰도다. 위앙종 가풍을 알고자 하는가?

斷碑橫古路 鐵牛眠少室.
부러진 비석이 옛 길에 쓰러져 있고
무쇠 소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구나.

법안종 가풍은 말 속에 메아리가 있고 화두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다. 분별심이 사라진 해골들은 언제나 여기저기 널려 있고 본디 깨달음을 나타내는 콧구멍은 가풍을 불어 낸다. 바람 불어 소리 내는 나뭇가지와 환한 달이 비치는 맑은 시냇물은 참된 마음을 드러내고 푸른 대나무와 누런 꽃은 오묘한 법을 잘 밝힌다. 법안종의 가풍을 알고자 하느냐?

風送斷雲歸嶺去 月和流水過橋來.
바람 불어 뜬 구름이 봉우리로 올라가고
시냇물은 달을 품고 다리 밑에 흘러가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언(眞言:다라니)은 무엇일까? 정답은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수다라니를 염송해보지 않은 불자는 없을 것이다.

천수다라니는 대비심다라니, 대비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삼매를 드러내는 다라니이다.

천수다라니는 당나라 가범달마(伽梵達磨)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崖大悲心大陀羅尼經)>에 모두 82구가 나온다. <천수경>이라 불리는 이 경의 또 다른 번역본으로는 당나라 지통(智通)의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과 보리류지(菩提流支)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모다라니신경>이 있다.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넓고 크고 걸림 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 설법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천수다라니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을 없애 주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 악업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모든 일을 성취시키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설법한 것이다.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十方)의 불보살이 와서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1>

정신분석과 불교-1

20세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과정은 세 가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식(consciousness), 전의식(consciousness), 무의식(unconsciousness)이 그 것. 의식이란 한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을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기억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 · 감정이다.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으로서, 자신이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충동이 억압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의식 세계는 태어난 이후 형성 불교는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되는 모든 법 포함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 이러한 의식 세계에 대해 매우 정교한 이론 체계를 세워 놓았다. 의식(意識)은 본래 불교 용어로서, 산스크리트어 마노-비쥬냐나(mano-vijñāna)를 번역한 것이다.

인간은 눈(眼) · 귀(耳) · 코(鼻) · 혀(舌) · 몸(身) · 마음(意)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으로 빛(色) · 소리(聲) · 냄새(香) · 맛(味) · 닿음(觸) · 현상(法)의 여섯 가지 대상[六境]을 인지한다. 이 가운데 앞의 다섯 가지 안 · 이 · 비 · 설 · 신을 의식 이전의 식이라고 하여 '전 오식'이라고 하며, 의식(意識)은 제6식이라 한다.

이 육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7식' '말나식(末那識)'이라고 한다. 제7식은 사량(思量)을 본질로 하는 식으로 '자아의식'이라고 본다. 아치(我癡) · 아견(我見) · 아만(我慢) · 아애(我愛) 등의 네 가지 번뇌와 상응하여 아집(我執)의 근본이 된다.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은 모든 법의 종자를 갈무리하고 일으키는 근본 심리 작용으로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된다. 아뢰야식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함장식(含藏識)'으로서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씨앗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무몰식(蕪沒識)으로 인간이 죽어서 감각기능에 의거한 여섯 가지 식[六識]이 사라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세세생생 윤회를 하는 동안 계속 남아 있는 기능이다. 셋째는 이숙식(異熟識)으로서 함장된 여러 가지 인이 서로 뭉쳐서 익고 변하여 새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이다. 넷째는 여래장식(如來藏識)으로 여래의 종자를 지니는 기능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의식 세계는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의 세계는 현생은 물론 전생, 내생에까지 펼쳐져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갈등이 들어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제8 아뢰야식에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내용은 물론, 만법 연기의 근본이 되는 모든 법의 종자가 함장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정신분석보다 훨씬 이전에 무의식의 세계를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무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펼쳐 놓았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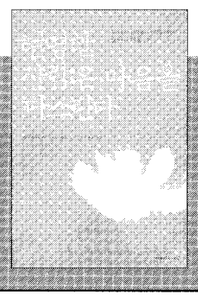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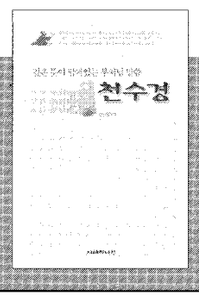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천자문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현자들의 철학과 일화를 통한 붓다의 마음다스리기!
담마난다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설 삼배, 원의삼점, 사십이수진언, 유통분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값10,000원

전화 (02)730-2211 팩스 (02)730-2210 지혜의나무

일주문



무상사서 '불교 태교' 주제 법문

불교TV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은 7월 28일 오후 2시 무상사 법당에서 '불교 태교'를 주제로 법문한다.(02)3270-3492



3사관학교서 기증자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7월 15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 나눔의집 찾아 봉사 활동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조계사 불교대학생 20여 명과 함께 7월 17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일 도우미'로 활동했다.



정우 스님 초청 법회 봉행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8월 6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초청해 1029일 천도법회 일곱 번째 49재를 봉행한다.(055)934-3000



봉사모임 '보리수신행회' 발족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7월 5일 교육원 수강생 20여 명과 함께 포교봉사모임인 '보리수신행회'를 발족했다.



은정학술상 후보 추천 받아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장 자승 스님은 8월 3일까지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02)515-9351



北에 대북지원 물품 전달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7월 18일 밀가루 500톤, 설탕 20톤 등 대북지원 물품 3억여원어치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월봉사서 3번째 전국순회강연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중앙대 겸임교수)은 7월 28일 울산 월봉사에서 전국순회강연 세 번째 순서로 자비명상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052)251-4602



장애인복지관연합캠프 개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도륜 스님은 7월 18~20일 영주시청청소년수련관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서 제6회 장애인복지관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지역 어르신 사생대회 개최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장용철 원장은 7월 22일 요양원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사생대회 '그림으로 열어가는 복지세상'을 개최했다.

"태허 스님 사상 재조명 할 것"

학술토론회 준비하는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민성진 사무국장

"매년마다 1년에 두 번씩 교수들과 스님들을 초청해 태허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운암 김성숙 선생 항일운동 학술 토론회를 여는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민성진 사무국장(사진)은 태허 스님의 항일운동과 불교정신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태허 스님은 좌익으로 몰려 역사의 제도권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스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이런 잘못된 현대사관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진실에 가까운 근현대사를 재조명하자는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2~3 차례의 학술대회가 끝나면 민 국장은 태허 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료집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양평에 대규모의 운암 기념관 테마파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인물의 평생 구심점인 인생관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태허 스님도 좌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좌우익의 사상적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민족주의 자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밝혀내고 효율적으로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동국대 원음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민대 손염홍 교수의 '의열단 활동과 관주 꼬뮨에서의 김성숙' △김광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김성숙' △건국대 한상도 교수가 '중경 임시정부에서의 김성숙'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법시인 서성림씨 두번째 시집 출간

불교적 소재 진솔하게 그려내

"불자님들이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산사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불교적 깨달음'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는 '전법시인' 서성림씨(57,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원 · 사진)가 두 번째 시집 <무지갯빛 바람소리>(경서원)를 펴냈다.

일상에서 소재를 구하고 이를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려내 총 4부로 나누어 담은 서 시인의 시집에는 1~3부에 '발우공양' '좌선' '불구부정' '차 향기' 등의 시가 실려 있다.

제4부에 실린 시를 읽으면 마치 사찰에 와있는 듯 묘사가 사실적이다. 서 시인은



남편이며, 불심 돈독한 정기웅 교수(건국대 법학과)와 매달 1~2번 사찰을 성지순례하며 시를 썼다.

그래선지 시집에 나오는 '갓바위' '사나사' '칠장사' '회암사' 등의 시에는 깊이와 무게가 있다.

서 시인은 1974년 이화여대 국문과 4학년 재학시절 대각사 불광법회에서 광덕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았고, 현재 불광사 합창단과 다도반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교단문학 신인상, 2002년 강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시집 <초여름의 향기>가 있다.

김원우 기자

류영근 前천안시의회 의원 '자비의 전화상담소' 창립



천안지역 사회봉사단체인 자비의 전화상담소가 7월 18일 창립했다. 지역 교육계 종사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창립한 자비의 전화상담소는 날로 늘어나는 이혼 · 청소년탈선 · 부부갈등 등의 가정 · 사회 문제 무료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류영근(61 · 사진) 前 천안시의회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류 회장은 "5년 전부터 구상해 오던 무료 상담소를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 · 종교를 초월해 시민들의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겠다"고 밝혔다. 3개월 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비의 전화 상담소'는 가정 · 청소년 문제와 종교 · 인생 상담 등 다양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17)-420-3116

여수령 기자

불교TV 시사토론 프로그램

배금자 변호사 진행 맡아



배금자(46 · 사진) 변호사가 불교TV 시사토론 프로그램 '배금자의 터놓고 얘기합시다' 진행을 맡았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0일 첫 방송에서 '대선후보 수십 명, 후보난립인가, 민주주의의 본모습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배씨는 "편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토론으로 불자들이 핫이슈와 흐름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씨는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88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군산 윤락가화재 참사 국가배상소송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증인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 흡연피해자공동소송(담배소송) 등 공익 소송 변호를 주로 맡아 왔다.

1994년 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MBC 프로그램 '오변호사 배변호사' 진행을 맡아 대중에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제10차 태고종 법계고시 실시



태고종 법계고시위원회(위원장 운곡)는 7월 12일 전승관에서 제10차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들과 고시위원 스님 등의 증참으로 진행된 이번 법계고시에 응시한 스님들은 모두 230여명으로 종사 23명, 종덕 39명, 대덕 74명, 중덕 55명, 선덕 40명이다.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 후원금 전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독거노인원스탑지원센터(관장 화평)는 7월 11일 주식회사 워커힐 직원들의 모금으로 조성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진구 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금은 매달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 20명에게 지급된다. 화평 스님은 "무더위와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식당 지원 명효 스님에 감사패



37사단 111연대 연대장 류재학 대령은 7월 6일 여름철 장병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장병식당 수리비를 지원한 구미 서황사 주지 명효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명효 스님은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여름철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당 수리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자 장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연주씨 초청 강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7월 12일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2회 '특별한 만남' 행사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연주 회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불자 청소년 2명에게 7월 27일 열리는 '제4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종무소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 공 스님**

2007년 하계범패교육

(정규생 및 통신생 추가모집)

2007년 8월 1일부터 ~ 8월 5일까지 (4박 5일)

8월 1일 10시부터	사물(북,요령,목탁,태징)다루는 법 불공의식, 신중작법(소창불)
8월 2일 9시 30분	칠성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8월 3일 9시 30분	백중불공, 민관욕, 대령관욕
8월 4일 9시 30분	상주권공, 기초의식, 범패 조석종성
8월 5일 9시 30분	점안의식, 회심곡(화청)의식 절, 사대행사 강의, 기타 등등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회비금, 숙식포함
◈ 교 육 비 : 숙식포함 삼십만원
◈ 교 수 :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 즉강
◈ 문의전화 : 011-624-8604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교육청앞 한국불교의식대학
◈ 특 혜 : 교육을 받고 입학하신 분은 학비에서 30%제외



대불청 부산지부 회원들이 황석산 앞에 흐르는 협곡에서 레프팅을 하며 젊은 혈기를 나누고 있다.

타오르는 불심 안고 또 다른 기행 약속…

대불청 부산지구 법우들 지리산 노고단서 평화 발원하고 레프팅하며 젊음 만끽

지리산. 민족의 영산이라는 이름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여름의 지리산은 어떤 것도 젊게 만들 수 있는 푸른 기운으로 가득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가 지리산을 찾았다. 7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45명의 법우들이 '2030 명상기행,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길'을 찾아 지리산의 푸른 기운 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첫째 날-청정수 같은 삶 발원

젊은 법우들이 처음 여장을 푼 곳은 구례 천은사.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서체가 눈길을 붙잡는 한 여름의 천은사는 적멸의 순간처럼 조용하고 그윽했다. 잠시의 휴식 뒤, 법우들이 보제루에 둘러앉았다. 이미 여러 차례 발우 공양을 해본 법우들이라 전혀 어색함이 없이 공양이 진행됐다. 발우를 받아들며 맑은 청수를 붓고 각자의 양에 맞게 밥과 반찬을 담아 죽비와 함께 합장을 했다. 밥과 반찬을 비우고 단무지로 남 김 없이 닦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수로 마무리했다.

청수처럼 세상을 맑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발원을 담은 발우 공양, 그 청수 속에서는 한 여름 밤의 별들이 담겨 빛나고 있었다.

4개조로 나누어진 법우들은 각자의 '수호보살', 비밀친구를 기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조용히 그리고 몰래 접해진 법우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아싸조', '삼족오', '찌리찌리'… 각조의 개성을 담은 코믹한 이름과 율동과 구호 속에 법우들의 체온이 전해지고 구법의 열기도 뜨겁게 달구어 졌다.

둘째 날-끈끈함으로 하나되다

지리산 노고단, 장쾌한 산세에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과 가장 가깝게 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법우들의 마음이 숙연해 진다.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아픔 속에 이슬로 사라진 넋을 위로하고 고통의 역사가 아닌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제(祭)을 올렸다.

그리고 계속되는 산행, 한 걸음 한걸음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듯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걸어가는 내내 조금만 신경을 늦추면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고 가픈 숨을 헉헉거렸고 한걸음 내딛고 있을 때 마다 무릎에는 고통이 진하게 전해져왔다. 그러나 나약해 보이는 여성법우, 이모를 따라 참가한 초등학생, 딸과 함께 참여한 나이 지긋한 보살님, 누구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다짐처럼 걸음걸음마다 굳은 의지가 가득했다. 20km. 9시간의 산행,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그 아득한 길에 법우들의 발자국이 꽃으로 별빛으로 피어 오랜 세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찾아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야단법석, 축제의 장이 펼쳐질까? 황석산 수련장 앞마당에서 법우들은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 작은 등불을 가운데 두고 심진 스님의 노래에 맞추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쳤다. 힘들었던 산행의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었다. 법우들은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가까워졌다.

세째 날-청년들 생명력 영원히…

"돌진! 앞으로~!" 황석산 앞으로 흐르는 협곡에서는 '한산대첩'이 재현된 듯 기상천외의 레프팅 전쟁이 펼쳐졌다. 각조로 나누어 보트를 타고 한 시간가량의 짧은 물놀이를 마쳤다. 서로에게 물을 끼얹고 보트를 뒤집으며 젊은 혈기를 나눴다. 그러나 즐거운 놀이는 한창 즐거울 때 마쳐야 했다. 즐거움은 한량없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을 때 그치는 용기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양 상림 연꽃의 숲. 천연 기념물 제154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숲이자 최대 규모의 연꽃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숲을 거닐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으며 고고하게 자라 아름답게 꽃피우는 연꽃 같은 청년이 되기를 발원했다.

"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갈무리 된 감동과 각오가 새로울수록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지리산 정기를 삶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또 다른 기행이 남아 있을 뿐.

지리산/글 · 사진=하성미 기자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들이 청수처럼 세상을 맑히는 삶을 살고자 발원하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조별 모임에서 율동과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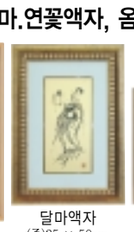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함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은행나무로 절집·마을 하나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1 용문산 용문사



신점리

군에서 추진한 놀이공원 용문산의 애물단지 취급
무분별한 개발로 마을 · 절 문화공간만 잃어버려
최근 절집서 불교용품점 유치 마을과 불편한 관계

속세의 번잡함일랑 벗어두고 무량청정토에 입성하라며 계곡물소리가 자꾸 따라온다. 일주문을 앞에 두고 나무판에 쓰인 문구가 선문답을 나누자고 한다. "흐르는 시간과 나 사이에 아쉬운 것은 시간이 아니라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이라며 화두를 던진다. 7월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 늘어지는 몸과 마음, 얼음냉수 한 그릇으로 갈증을 해소한듯하다. 귀밑을 스쳐가는 작은 솔바람에도 감사하고 짝을 부르는 새소리도 새겨들으며 걷는다. 경내에 들어서자 푸른 용문산 자락이 와락 품에 안긴다. 몸 안에 푸른피가 도는 느낌이다.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 대경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진덕여왕 3년 원효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고려 우왕 4년에 지천 대사가 개풍 경천사로부터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고 조선 태조 4년 조안 화상이 중창불사를 하였다.

순종 원년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일본군이 절집을 불태워 터만 남아 있는 곳에 취운 스님과 태욱 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였다.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탑도 조성하였다.

용문사의 유래를 잘 알고 있는 양기석옹이 역사는 바로 써야 된다며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용문사 창건을 신덕왕 2년에 했다고 하는데 은행나무 안내문에는 의상 대사가 나무를 심었다는 문구가 있어요. 신덕왕과 의상 대사는 살았던 연대가 약 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신덕왕은 신라 53대 임금이고 의상 대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때 살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높이와 넓이도 자료마다 틀려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용문사 사천왕문 자리에는 은행나무가 앉아있다. 천연기념물 30호인 은행나무는 신라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많은 전쟁과 화재가 있었지만 은행나무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사천왕전이 불탄 뒤부터 천왕목(天王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 내어 변고를 알렸단다. 그런 연유로 조선 세종 때 정삼품보다 높은 당상직첩을 하사받은 명목이 되었다. 사하촌 신점리 사람들도 신령스런 은행나무를 숭배하게 되었다. 매년 음력 3월 3일이면 절집에서도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위한 은행나무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신점리가 사하촌으로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절 땅에서 많이들 살았지요. 총무원에서 재산관리를 위한 스님 한 분을 발령 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스님에게 집짓고 살게 땅이나 좀 주시오 하면 땅을 주었지요. 일 년에 쌀 한 두 말 내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절집과 사하촌이 협조하며 가족처럼 살았지요. 화전민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산을 개간하기도 하고 절집 농사도 지어주며 살았지요."

"사하촌이 국민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절 땅에 살던 주민들이 내 땅에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지요. 군에서 절 땅을 사서 상가를 조성해 마을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신점리는 160세대가 어울려 산다. 대부분 장사를 해서 돈을 만지는데 예전에 식당을 한 사람들은 뱀탕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내 카메라를 보더니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으러 왔느냐며 친절하게 옛날이야기를 꺼냈다. "용문산 계곡이 좋아 여름이면 야영객들이 많았지요. 군에서 놀이공원을 추진해 놀이기구가 들어오면서 야영객들이 줄었어요. 주민들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공해를 피해서 쉬러 오는 손님들에게 맞지 않을 것 같아 반대했지요. 차라리 겨울철에 손님이 없을 때 눈썰매장이나 만들어 겨울장사를 하게 해달고 했습니다. 지금 놀이공원은 애물단지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감춰두고 있었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라면 몰라도 국민관광지에 불과한데 생각 없이 개발하여 사하촌과 절집 문화공간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래도 등산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산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이란다.

용문사에서는 고승들도 많이 나왔다. 무학 대사와 정지 국사도 용문사에서 정진을 하였다. 스님들이 불경공부에만 열중하느라 산문 밖 출입이 없어서 그런지 사하촌 사람들과 절집이 교류하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했다. 서로 이해가 엇갈려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절집에서 상가를 유치하려고 하자 아랫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절집에서는 이미 불교용품 판매점 허가를 내놓고 있어서 서로 마음 당기기를 하고 있다.

사하촌에는 불교신자와 기독교 신자들이 어울려 산다. 장로교회가 두 개나 있다.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장이 제주가 됩니다. 마을 화합차원에서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지요. 그런데 지금 이장이 기독교인이라 다른 사람을 선정합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의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선근공덕을 쌓으며 살면 그뿐이지요."

정미의병의 발상지답게 양평 사람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도량을 지니고 사는 듯했다.

양평=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사 경내.

봉 축

호국법화경사경봉안대법회
순교성사 허응보우·환성지안대사 석상제막식



귀의삼보하옵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크신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가정마다 화목의 꽃 피우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편안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평화통일 기원의 성지이자 불교중흥의 순교성지인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에서는 광복 62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호국안민을 발원하는 법화경 사경 봉안 및 독송 기도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가정을 부처님 상주 설법하시는 청정도량으로 가꾸고 사경하는 사람들을 성불의 기운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법화경 독송 기도의 위신력으로 국가와 겨레의 운이 맑고 깨끗해져서 평화통일의 기운이 활짝 열리어 7천만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아래 제주도의 평화통일불사리탑에 조선시대 불교의 횃불이셨던 허응당 보우대선사와 환성당 지안대종사 두 스님의 석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우선사는 조선의 불교말살 정책 하에서 쓰러져가던 불교를 중흥시켜 폐지됐던 선교 양종과 승과제도를 다시 일으키고 이를 통해 서산 · 사명대사와 같은 큰 인재를 발굴하여 불교계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분입니다. 환성 지안대사 또한 화엄의 대강백으로서 불교중흥을 위해 애쓰시다가 금산사 법회에 운집한 대중을 보고 위기를 느낀 유생들의 무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분 모두 이곳 제주도에서 비참하게 순교하셨던 바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불교가 회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에서는 두 순교성인의 불교중흥의 뜻을 받들고자 오는 8월 16일 교계 큰스님들과 지역유지 및 5,000여 불자들을 모시고 두 분 대사의 석상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성스러운 행사에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 주지 석경태 / 회주 석도림 합장


허응당 보우대선사


허응당 보우대선사 순교비


환성당 지안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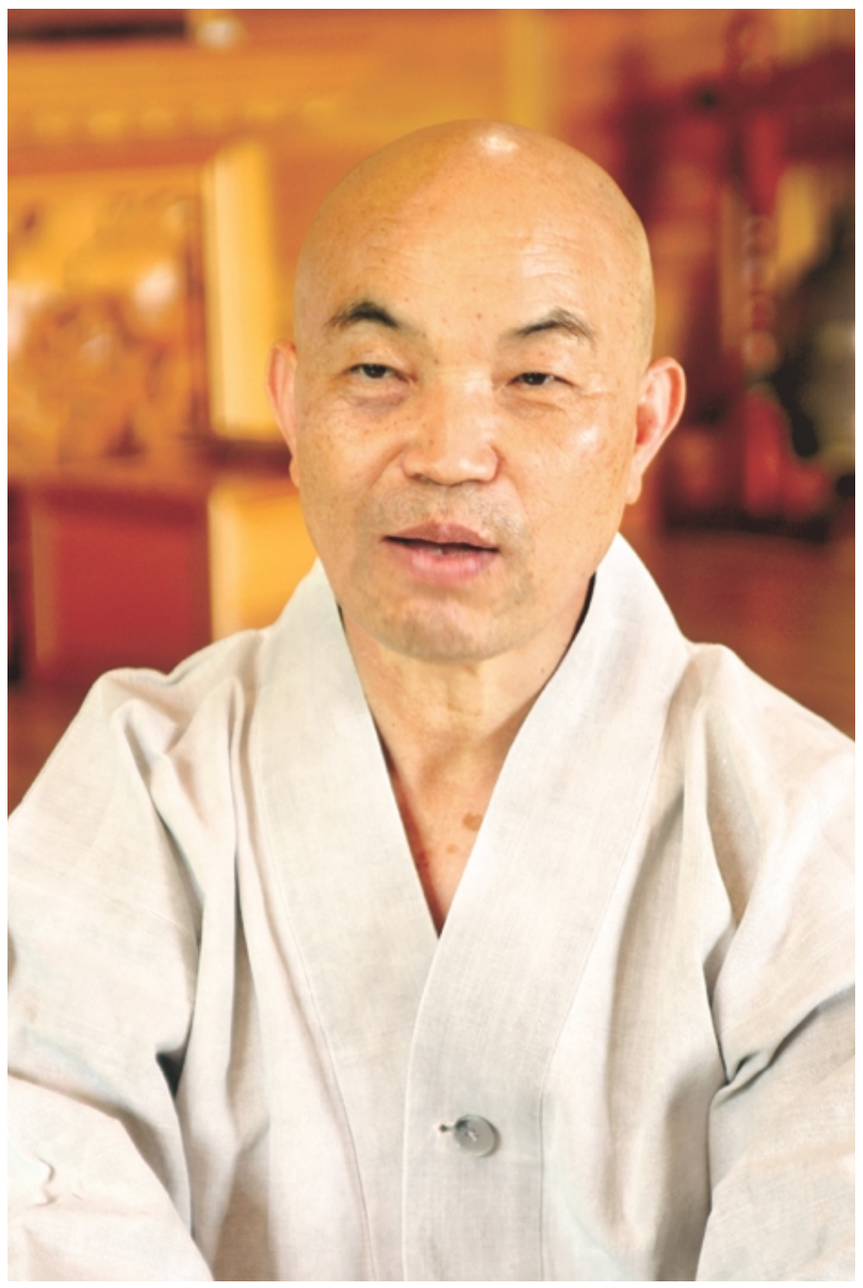

환성당 지안대종사 순교비

■ 일시 : 불기 2551년 8월 15일 ~ 17일(광복절3일기도) 법화정사 (02) 928-1331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제주도 조천읍, 전화 064-783-8801)

순교성사 허응 보우 · 환성 지안대사의 석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석상건립후원계좌 : 신한은행 321-11-011078 예금주 : 김 암(석도림)

쌀보살·꽃보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보살님' 기쁨·이익 주며 살아야



혜인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절 속에는 존경 공경 약속 맹세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무시하는 마음, 자비 싹틀 수 없어 남에게 혜택 주어야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는 최선 다할 것 강조

비가 내린 다음날이라 그런지 온 산천이 맑은 빛이다. 거침없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소리는 내 귀에 와 걸리고, 산란한 빛 사이로 흐르는 바람결은 온몸에 휘감긴다. 이렇게 물과 바람과 나무와 조우하면서 단양 도락산 산길을 걸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나무 사이로 공사중인 콘크리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금동대불과 100만 부처님이 모셔지는 것이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약천사를 중창하였던 혜인 스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광덕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또한 대단하다.

무릎에서 고름이 나오고 코피가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도 100만 배 수행을 마친 혜인 스님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오척 단구의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궁금하였다. 우리가 늘상 하는 절에 대해 혜인 스님은 이렇게 정의하였다.

"절이란 가장 짧은 말로 종교 전체의 사상과 핵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절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공경, 약속, 맹세 등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절에 간다는 것은 절을 통해서 마음을 수행하는 곳에 간다는 말입니다."

혜인 스님은 100만 배를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하였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밖에 없었기에 부처님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렸다. 또 하나는 나이 30살에 100만 배를 하였는데, 30년 동안 신구의(身口意)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의미로 한 것이다.

혜인 스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0만 배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과 공경의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절이거늘, 스스로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단다.

"100만 배를 했기 때문에 숫자 100만 배가 별 가치 없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요즈음에는 새벽 예불 때 항상 108배를 합니다. 100만 배를 할 때는 제불보살께 뉘우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뿐이었는데, 요즈음 하는 108배에는 우주만물에 감사하는 마음,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혜인 스님은 100만 배보다도 아침마다 올리는 108배를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 스님은 땀 흘려 고생하는 노동자들, 운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육해공군과 경찰을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위해서, 충신이었던 성삼문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단종 내외를 위해서, 또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절 한 배마다 담아서 올린다. 사상과 종교와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지낼 수 있기를 절한다. 스님의 108배에는 보살의 동체대비 정신이 담겨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절을 하다보면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 버릴 자도 없고, 고마워 아니할 대상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절에 어떤 정신을 담아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의 가치는 100원짜리 절이 되고, 100만 원짜리 절도 되는 것이다. 수자영가를 위해 절한 일배(一拜)가 100만 배보다 더 가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은 자신의 절 수행이 어떻게 회향되어져야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모든 인류와 만물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예를 올리는 것이 절이지만 이것은 또 참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는 생각 등 거만한 생각과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에서는 자비가 싹틀 수 없어요. 남보다 좀 나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가졌을 때는 남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을 때 그것은 독이 될 뿐이란다. 보살이란 인류에게 기쁨과 혜택, 고마움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스님은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카메라 보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채소보살, 쌀보살, 꽃보살, 볼펜보살 등 많은 보살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이러한 사물들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남에게 기쁨과 이익을 줄 수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음식을 담듯이 참회는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참회이며,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참회란다. 스님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또한 불교라고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춘다는 것은 아부(阿附)와는 다른 하심(下心)과 무아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아상을 버리라는 또 다른 말씀이다.

기도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이 앞서는데, 구하는 마음을 앞세우고 기도를 해도 되느냐고 여쭈었다.

"기도 속에 참회와 정진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기복불교는 별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불교를 망하게 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좀더 잘되기를 바라는데 기복이 왜 필요 없어요? 기복이 없으면 불자들이 절에 올 필요도 없어요. 기복이 있어야 작복도 있어요. 참선, 집에서 하면 되지. 불교가 기복에서 탈피하고서부터 신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사찰의 재정이 힘들어졌으며, 사람들의 호응도가 떨어졌어요. 기도나 기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두고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100만 배를 하고나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꼈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도 자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불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가슴과 머리에, 아내는 남편의 가슴과 머리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진정한 불자요, 성공한 불자란다.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성공 비성공을 따질 것인가'라고 반문하신다. 스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문자답하게 만든다.

"나 지금 성공한 것이니?"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혜인



혜인 스님은 1943년 제주도 화순리에서 출생하여, 13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출가하였다. 팔공산 동화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해인사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에서 10안거를 성만하였다. 30살에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100만 배 절 기도를 성취하였다. 1981년 제주 약천사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8년여 공사 끝에 1996년에 완공하였다. 지금은 단양 도락산에 중국의 낙산대불보다 더 거대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집중탐구-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마음 치유에 대한 가르침 불교 안에 다 있어

4.불교인성교육 좌담회

▲ 좌담 참석자
김용환(한마음과학원 실장)
김영래(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박사)
정여순(중학교 교사)
이은희(중학교 교사)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이하 한나무)의 성과를 통해 충분히 살펴봤다. 불자가 아닌 어린이청소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 그것은 불교 안에 있었다.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시리즈를 마감하며 한나무 개발진과 교육문제 연구 전문가, 한나무를 직접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교사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봤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고 마음 치유를 근본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은희 · 정여순 교사, 김용환 실장, 김영래 박사(좌로부터).

기자:오늘 이 자리에는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과연 불교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또 불교계가 어떻게 힘을 모아가면 좋을지를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래: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인성파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시기였지요. 제가 있는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의 경우, 2005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기자:인성교육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래:탐방과 자료 수업,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 · 질서 · 준법 등 도덕 덕목 중심의 예절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학계에서 교재개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성하면 유교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지 못합니다.

기자:왜 인성교육이 필요한지 또는 인성교육의 실태에 대해 체감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여순:요즘 아이들에게서는 예전 같은 공경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직설적으로 싫으면 "싫어요"라고 바로 이야기해요. 아이들끼리만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종종 부딪치게 됩니다. 한 번쯤 되돌아서 생각하는 여유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은희:저희 학교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왔어요. 학교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요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정규과목에 넣어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는 1주일에 1번씩 인성교육을 재량껏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여순:어느 학교나 '인성교육'이 학교 설립 목표에요. 선생님 스스로 인성교육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교과목 안에서 잘 녹아들어야 인성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성적 위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만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기자:불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타종교나 일반 사회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용환: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전제 하에 저희가 조사한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원불교가 먼저 시작했고, 상당히 활발하지 않나 싶어요. 몇 년 전, 원불교 재단의 경주 화랑고등학교에 가보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1주일에 1시간씩 하더군요. 그 때 놀란 것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화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한마음 요전>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 참, 우리는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톨릭은 대건고등학교에서 잘 하고 있지요. 학교가 가톨릭 재단이다 보니 그 교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본지 635호 12면 참고).

모든 학교 '인성교육'이 목표, 구체적인 대안 없어 아쉬워
불교계, 단기 프로그램은 있지만 공교육 진입 단계는 아직…
불교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원리 제시할수 있는 종교

현재 전체 불교계에서 볼 때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단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교육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불교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교계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래: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독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예상 밖으로 종교적 태도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가 많아 공교육화 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김 실장님 말씀대로 원불교가 마음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자:이쯤에서 불교인성교육은 무엇이고, 왜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환:그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부분인 듯합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모든 실존적인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본 인간이란 본래 참된 자유와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기를 갖고 자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불성의 자각, 근원적 주체성의 자각, 근원적 자유의 자각이 불교인성교육의 기본입니다.

정여순:저는 현장에서 왜 불교인성교육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많이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고민합니다. 일단은 괴로움이 없어야 하지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불성의 발견'이지요. 즉,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내기 위해서는 뿌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인성교육을 펼치는 선생님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까요.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며 믿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은희:저는 체험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마음선원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 문제도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를 봐도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불교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요. 쉽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줄 수 있죠.

다른 종교도 있지만 누구나 설득할 수 있고, 그 기본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인 것 같습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편이 불교 안에 있습니다.

김영래:처음에 말씀드렸듯, 인성교육이 태도교육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인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치유, 마음의 계발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치유와 계발은 역시 불교로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마음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마음을 치유하고 계발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불교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계속 해나간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한나무는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고,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요.

화제의 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평생부자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金나노중지갑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개발 가능성 '무궁무진'…교육 공동체 설립해야


김용환


정여순


이은희


김영래

'한나무' 마음노트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간 마음 공유 · 치료 실천 가능토록 언어 바꾸기 · 교재의 대중화 등 작업 진행 중 학생들 인성 책임지는 건 교육자…교사들 공부가 우선돼야

김용환:발단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마음선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대행 스님 가르침으로 공부하다 보니 스스로 행복해져서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지요. 그러다 2004년부터 한마음과학원에서 프로그램화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교재도 거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초등, 중등용 교재를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신도든 아니든 불교인이든 비불교인이든 상관없이 한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기자:한나무의 기대효과와 가시적인 효과를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이은희:아이들이 쓴 마음노트죠. 마음노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교재를 통해 마음을 살펴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 뒷마무리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써보는 것입니다.

처음 한나무를 적용할 때는 기대라기보다 설렘이 있었어요. 과연 어떨까. 예상 밖으로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 시행했을 때는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마음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써내게 해 봤어요. 이 두 질문은 체험을 해봐야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아이들이 받아먹고 있구나'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정여순:저는 요즘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아이들이 참 산만하다는 것을 느껴요. 수업 종이 쳤음에도 그제야 사물함에 가서 책을 꺼내오느라, 또 친구들과 떠드느라 야단이에요. 그런 분위기로는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최소한 자기 컨트롤은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교리를 내가 알고 있어서 편하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수업시간 10분 정도는 무조건 마음공부를 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가끔 일부러 안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 때는 애들이 먼저 하자고 말할 정도로 좋아해요.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짜증나"에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마련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되도록 마음공부를 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도 아이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기자:한나무를 교육문제연구소 프로그램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까?

김영래:사실 인성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과에서 인성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영어 · 수학 등의 과목 속에서도 인성교육이 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러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 인성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지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기관에 좀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전반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체 교육계에서 수용하려면 학교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사례연구가 좀 더 모아지고 연구가 지속되면 한나무가 전체 공교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래:그렇게 하기 위해 한마음과학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색채라는 것이 보편적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개념 자체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기자:한나무의 어떤 점들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환:김 박사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이 본질적인 교육이 돼야 합니다. 한나무가 본질적 교육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 그 점을 일깨워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목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인성교육과 함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기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정여순:학교 일정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할 수 없어요.

인성교육을 하면 사실 아이들과 함께 늘 마음을 다듬어 더 여유 있어져요. 그래서 주위 선생님들께 권하지만 교과목 연구 외에 무엇인가를 또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정규 교과목 속에 녹아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기자:불교계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한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김영래: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계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계층,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한나무만 보자면 초 · 중등 과정을 개발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인성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속 공부만 강요당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요. 성인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불교 인성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지요. 서구인들에게도 불교인성교육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을 보면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범죄를 어느 날 갑자기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학자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원적 이해, 마음의 치유와 발달을 독일인들이 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김용환:무궁무진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불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불교의 현대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대화란 현대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 중요해지겠지요. 지식이나 자본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사회자본, 영적 자본 등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는 인성교육, 지도자교육 등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불교인성교육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이은희: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종단을 초월해 한마음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어디선가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서로 좋은 것들을 통합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한나무와 또 다른 프로그램이 교류함으로써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불교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콘텐츠 제시도 괜찮습니다.

김용환:이제 저희는 불교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뜻을 가져다 쓴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해나가시는 선생님들과 대학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 가정교육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어우러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함께 불교계의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불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무의 경우 사이트 접근도 제한적입니다.

김용환:1차적으로 과학원에서 교재를 대중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연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 교사 사람들 누구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교재를 하루 빨리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래:우선 전문가 차원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 따라 '인성교육을 받으면 공부를 잘 한다'는 인식을 퍼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학습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나무는 바로 이것을 교육시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계발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한나무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연계시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논술교육, 독서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정여순:인성교육은 곧 마음교육인데 그것이 올바로 되려면 우선 교사의 마음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인성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더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교사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계발해나가는, 즉 교사 스스로 마음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교사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교사들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한나무는 삶의 원리를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교사가 완전히 습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저절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먼저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알아야겠지요. 무엇보다 교사의 마음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김강진 객원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좌담 관계로 '이책은 읽어야 해' '만화로 떠나는 철학여행' '우리말 꼭꼭 씹어먹기' '우리들 생각'은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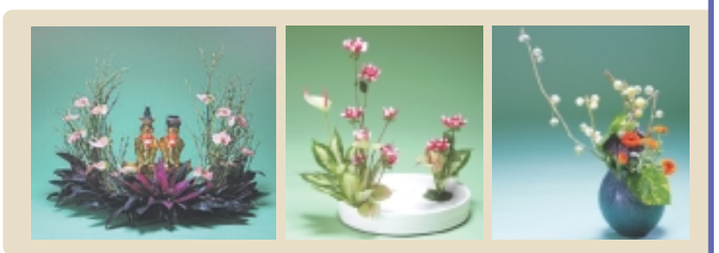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원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은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닥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농협 100083-56-142307 예금주 : 위일석)
입금하시고 011-9024-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1-9024-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보림 지연 편저 / 도서출판 인아
263쪽 / 값 20,000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꽂이와 병꽂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꽂이 14가지 형 外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 · 면 · 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보림 지연스님
• 한국 꽃꽂이 협회(금연중앙회) 1972년 입문
•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이상 출품
• 전국 불교꽃꽂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 전국 불교꽃꽂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봉녕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 한국화예디자인학회 이사(현)
• (사)한국꽃꽂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본인 부담)

“꿈 속 악한 자신의 모습 자책 마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㉔ 악몽이 악몽이 아닌 이유

악몽에 시달리다

‘아앗!’

J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다. 최근 들어 자꾸만 반복되는 똑같은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 한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무자비하게 칼로 마구 찌르고,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미소까지 지으면서 만족해한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꿈을 깨고 나면 끔찍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질색인데, 더구나 쾌감과 잔인한 마음까지…. 벌벌 떨릴 지경이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J씨는 평소 폭력을 싫어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청년 시절부터 사찰에 다닌 자신이 아닌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웬일인가?

왜 사십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이런 꿈을 꾼단 말인가. 아내가 “여보, 당신 요즘 가위 눌리는 것 같은데요?” 했지만 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악한 습성이 남아 있거나 전생에 악한 일을 한 것 아니냐고 할 것 같아 두려웠다. 사흘이 멀다 하고 악몽이 계속되며 석 달이 넘어가자 그의 얼굴에까지 짙은 그림자가 생길 지경이었다. 그는 잠자는 것이 무서웠다.

마침내 스님께 털어놓으며 “이런 악한 꿈을 꾸니 업장 소멸 기도나 참회를 해야겠지요?”하고 물었다. 뜻밖에도 스님은 “왜 그 꿈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 하시는 게 아닌가. 멍해졌다.

왜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사님, 지금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 뿐 아니라 과거에

꿈 속 잔인한 자신의 모습에 ‘경악’
몇달째 악몽 시달리다 스님과 면담
과거 生 업식 인정하고 웃음 되찾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에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 없는 때가 있었나요. 더구나 예전에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잘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 아닙니까? 거사님도 예전 한 때 전사였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님법도 몰랐을 테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때에는 적국의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었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리가 없지요. 다 인간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탓이지 거사님 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꿈속의 자신을 악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왜 계속 꿈에 나올까요.” “업식이 남아 있었겠지요. 싫어하고 두려워하면 더 계속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한 생각의 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J씨의 마음에서 마치 먹구름이 걷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 예전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잘 싸우는 것이 최고였겠지, 그게 살아남는 길이고 애국이었어,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고. 악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이 펴지자 얼굴도 확 펴지는 것 같았다.

집에 가니 아내가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한다. 속으로 ‘그래, 악몽이 악몽이 아니었어!’ 했다.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건 나쁜 꿈이다’에서부터 ‘괜찮다’로 바뀌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해졌다.

그 날 밤도 같은 꿈이었지만 깨어서는 편하게 생각했다. 나쁜 꿈이 아니다. 괜찮아! 그러자 날아갈 것 같이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저절로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 몇 달 후 또 한 번 같은 꿈을 꾸었으나 더 이상 J씨에게는 악몽이 아니었다. 이젠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석 달을 끙끙 앓았었는데…, 똑같은 꿈에 대해 생각 하나를 바꾸자 완전히 딴 세상이더군요.” 이거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한 생각에 수미산만한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다. 막히게 하는 것도 뚫리게 하는 것도 오직 자기 마음이다.”

J씨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산행게시판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강화 선원사가 8월 1~5일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팔만대장경 이운법회’를 비롯해, 전통문화공연, 연꽃노래자랑, 지역작가 초대전, 연꽃사진전, 농산물 한마당, 연음식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032)933-8234

●**염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전국염불만일회가 7월 29~31일 10차년도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한다. 백담사 만해마을과 건봉사에서 열리는 이번 성지대회는 염불다짐대회와 1일 아미타불 1만 번 정근기도, 다도 퍼포먼스, 찬불가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1998년, 27년 5개월의 염불결사를 시작한 전국염불만일회는 전국의 염불 성지를 순례하며 염불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성지대회 참가비 7만원. (02)732-1215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해남 대흥사가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8월 1~5일 개최한다. 차의 성지 대흥사에서 다도를 배우는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는 차 제련, 다도, 차 이론교육, 차 명상 등을 공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행선과 새벽 숲길 산책을 통해 마음도 다스린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수계식도 봉행한다. 동참비 10만원. (061)534-5502

●**금산사 어린이 캠프=**김제 금산사가 수행과 체험 등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놨다. 7월 27~29일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캠프를 마련한다. 참가비는 5만원. 19세 이상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禪-나를 깨치다’는 8기가 8월 3일~7일, 9기가 13일~19일 진행된다. 동참비는 8기 15만원, 9기 20만원이다. (063)548-4441

●**‘화림원스님과 함께하는 좌선’ 템플스테이=**남원 실상사가 스님들의 수행처인 화림원에서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화림원 스님과 함께하는 좌선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1차 7월 26~29일, 2차 8월 2~5일, 3차 8월 9~12일, 4차 8월 16~19일 등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2차는 단식 템플스테이다. (063)636-3370

●**참선단식 수련회=**제주 원명선원은 7월 26~8월 1일 참선단식 7일 집중 삼매체험수련회를 개최한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7월 25일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064)755-3322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⑤

백장청규, ‘노동=수행’ 계율관 정립

(百丈淸規)

<임간록(林間錄)>에서 백장의 삼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대지(大智: 百丈)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교학에서 쓰는 말들은 대체로 삼구(三句)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 ? 중간 ? 마지막의 선(初中後善)이다. 처음은 그에게 선한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며, 중간은 그 선을 부수는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선을 밝힌다. 이를테면 ‘보살은 곧 보살이 아니니, 그 이름이 보살이라 한다(菩薩卽非菩薩是名菩薩)’고 한 것이나, ‘법은 법이 아니며 그렇다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法非法非非法)’라고 한 것이 모두 그러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만일 일구(一句)만을 설하고 답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며 삼구(三句)를 한꺼번에 설하면 그 스스로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상관없게 된다.(<林間錄>권上, 禪林古鏡叢書, 藏經閣, p 97~98)

백장이 말하는 초선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하나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며, 중선은 초선의 입장을 부정하는(버리는) 것이며, 후선은 초선의 입장을 버렸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부정의 부정)이다. 다시 말하면, 초선은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집착하지 않음이 옳다고 여겨 거기에 머무는 것이니, 이는 곧 이승(二乘)의 경지이다. 중선은 이미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그 집착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곧 보살승(菩薩乘)의 경지를 가리킨다.

후선은 이미 집착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게 된 후에 또 애착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지해(知解)마저 소탕해 버리는 불지(佛地)의 경계이다.

그러나 백장은 이 세 경지는 각각 하나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완전한 최상승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상승의 깨달음은 세 경지, 즉 삼구를 투과하여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허공과 같은 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구를 투과한 경지가 바로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고, 또한 허공과 같다는 생각도 없는 최상승의 경계이므로 유무(有無)가 자취도 없이 소탕되는 것인데, 죄가 어디에 본색을 들어 낼 수 있겠는가라고 설하고 있다.

위의 문답에서 백장이 관철하고자 했던 의지는 출가 수행자가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계율에 저촉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상계율(有相戒律)의 계목의 한계를 무상계율(無相戒律)의 본원인 자성청정심의 발현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계상(戒相)과 죄상(罪相)에의 이원성(二元性: 집착과 불집착)을 초월한 근원적인 청정심의 경지에서 이 문제를 초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백장이 청규를 제정할 때에 “어떤 사람이 <유가경(瑜伽經)>, <영락경(瓔珞經)>은 바로 대승의 계율인데 어찌 그것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아래와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내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소승의 계율 조목에 국한하지 않고, 또한 대소승의 계율정신에 위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두루 대소승의 계율을 섭렵하고 잘 절충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수행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傳燈錄>권제6,<大正藏>제51권, p 251上)

선종이 중국적 불교의 색채가 농후 하듯이, 백장은 중국의 환경과 풍토에 맞는 계율관을 정립하고 있다. 이미 시간과 공간의 상이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계율조목에 대해 보다 적극적, 객관적,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융섭하여 중국적 입장의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선종의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백장청규(百丈淸規)’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교교단에서 출가 수행자의 노동생산의 문제는 정상적인 수행생활로 정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불교 교단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획기적 사건으로 서양의 종교개혁에 비

중국 환경·풍토에 적합한 규범 제정

백장청규 시행 선문 독자적 수행 可

견할 수 있다. 아울러 엄격한 의미에서 백장청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선문의 독자적인 수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고승전>에서 찬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하의 선종이 풀을 눕게 하는 것과 같이 선문의 독자적인 수행도 회해선사로 말미암아 시작 되었다.(<宋高僧傳><大正藏>제50권, p 771上)

그러면 ‘백장청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백장청규’의 전체 내용이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대강(大綱)과 면목은 <위산영우선사어록> 및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등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고, 백장 원적 후 약 100년경 송 찬녕의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늦어서 경덕원년(景德元年: 1004) 한림원의 학사 양억(楊億)의 찬인 <백장청규>의 서문(<경덕전등록>은 동서(同序)를 <선문규식(禪門規式)>으로 하여 <백장선사전>의 말미에 부록함) 가운데서 볼 수 있을 뿐이다.(최법혜 역주, 고려판<禪苑淸規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 20~21)

본고에서는 그 목적에 의해 백장청규의 전체 내용 가운데 ‘보청(普請)’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문규식(禪門規式)>에는 ‘보청(普請)’에 대해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청을 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계속)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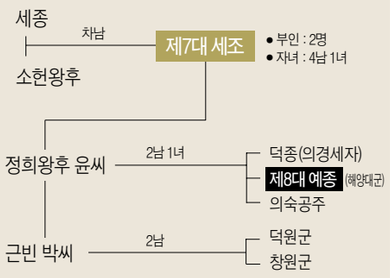
“나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석곽 사용 말라”



7대 세조 광릉(1)

세조 1417~1468년 (52세)
재위 13년 3개월 1455. 6(39세)~1468.9(52세)

제7대 세조 가계도





능침과 난간석이 기울어져 있다. 평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망자의 뜻인듯.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사적 197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2 소재, 면적 31만5124평. 세조의 유언대로 석곽을 쓰지 않고 조선 최초로 회곽(관과 광중 사이를 석회로 다지는 회격으로 석실과 석곽을 대신하는 양식)을 썼다. 왕과 왕비의 두 무덤에 정자각 하나를 만든 ‘동원이강릉’으로도 최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명확한 기록이나 증거는 없으나 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다.



광릉의 원찰인 봉선사의 대종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 세조의 유명(遺命)이다. 세조는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악화되어 왕세자(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튿날 수강궁에서 52세로 승하했다.

역사의 영욕과 파노라마, 그 기승전결을 온몸으로 보여 준 이가 세조다. 권력의 잉태와 성장, 소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 이가 세조다. 영광과 비난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며 지금 ‘빛나는 무덤(光陵)’에 누워 있다. 그의 유언은 영욕의 생애를 압축한 묘비명 같다.

광릉은 조선시대 440여 년 동안 풀 한 포기 채취도 금지될 정도로 보호되어 산림이 울창하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조 크낙새가 이곳에서 서식한다. 능역 내 약 100정보에 150종의 활엽수림, 수령 수 백 년의 소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이곳의 지명이 ‘광릉내’로 불리는 것은 광릉이 있기 때문이다. 세조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울울창창 속에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 조카를 무자비하게 살육한 권력의 화신, 치솟는 신권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 제왕, 궐내에 사찰을 두고 스님을 궁으로 초대해 설법을 들은 호불의 군주, 왕자 시절 불경 언해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학자풍의 군왕. 하나의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위인이 세조다.

세조는 불후의 성군인 세종의 18남 4녀 중 둘째 아들이다. 형이 문종(5대), 조카가 단종(6대)이다. 대군시절의 이름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이었으나 세종 15년(1433) 함평대군으로 고쳤다가 진양대군으로 다시 고쳤으며, 세종27년(1445)에 수양대군으로 바꾸었다.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조의 등극은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 용상으로 가는 설계도를 쥐고, 길이 없으면 만들고 검불이 있으면 헤치고 갔다. 역사는 승자의 몫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기며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이기도 하다. 세조에 항거해 몸을 던진 사육신도 애초부터 저항 세력이었던 것은 아니다.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고명대신에 의해 장악된다. 권력이 신하들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가 조정을 좌지우지한다. 태종이 왕비 집안을 몰살하면서까지 다져놓은 왕권이 곤두박질친다. 고명대신들은 황표정사(黃票政事)라는 것을 행한다. 의정부에서 대신에 임명할 인물의 3배수를 올리되 자신들이 의중에 둔 인물의 이름 아래 노란 점을 찍어 놓으면 단종은 결재만 하는 식의 정치다. 김종서, 황보인 등 핵심 고명대신들의 아들과 측근이 대거 등용되었고 아들들은 초고속 승진을 한다. 한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왕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백관은 의정부는 알았으나 군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재상 중심 체제를 주장하던 성삼문 등 집현전 학자들도 김종서의 지나친 전횡을 비판했다. 할아버지 태종 때 유년기를 보내고 아버지 세종 때 청소년, 청년기를 보낸 30대 중반의 수양대군은 피가 끓는다.



광릉에 들어오는 울창한 숲길.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광릉, 조선시대 440여 년 동안 엄격히 보호 산림 울창
대군 이름 4번 바꿔…신미·수미 대사 등 고승과 친교
호불은 ‘善’, 배불은 ‘惡’ 배불정책 외면한 ‘대호불왕’

어떻게 일군 왕조인데, 칼과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운 왕조의 몰락을 보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다.

1453년(단종 2년)10월 10일. 역사의 물꼬가 바뀐다. 이른바 계유정난이다. 현대사에도 역사의 가닥이 휘꺾인 때가 10월이었지(10.26 사건). 수양대군의 로드맵은 치밀했다. 그해 초 수양대군은 자청해서 명나라에 간다. 단종의 즉위를 인정한다는 명나라 황제의 뜻에 감사하다는 사은사로 간 것이다. 권력투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시점이다. 수하들이 만류했지만 덤덤하게 명으로 떠났다. 고명대신들을 안심시키려는 고도 전략이다. 전략은 적중했다.

명에서 돌아온 4월에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고 홍달손, 양정 등 칼잡이들을 양성했다. 6개월 뒤, 10월 10일 밤, 거사는 전광석화 같이 실행된다. 수양대군은 부하 유숙, 양정, 어을윤 등을 대동하고 김종서를 찾아가 철퇴로 살해한다.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극관, 이조판서 민신, 우찬성 이양 등을 어명을 빙자하여 차례로 대궐로 불러들여 참살한다. 한국전쟁 때 폭파된 한강 다리로 떨어지는 목숨들처럼 차곡차곡 죽어갔다. 피비린내 자욱한 밤이 가고 시린 가을 아침, 세상이 바뀐다. 5.16, 12.12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는 모양이다.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첫째 동생 안평대군을 붕당 모의의 주역으로 지목해 강화도에 유배시켰다가 사사했다. 넷째 동생 금성대군도 유배 후 사사,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낸 후 다시 노산군으로, 그리고 서인으로 전락시켜 죽였다. 그의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다. 어떻게 업장을 녹이랴.

역사는 그것을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 부른다. 즉위 기간 내내 죄책감에 시달린다. 야사는 이렇게 전한다.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인 현덕왕후(문종 비) 권씨의 혼백에 시달려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세로 요절한다. 병상에 있을 때 21명의 스님이 경회루에서 공작재를 베풀었지만, 그는 끝내 죽는다.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파내 바닷가에 버린다. 또한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꾼 후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고생한다. 피부병을 고치려고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가 문수동자를 만나 쾌유한다. 그 장면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괴롭다. 국제적 인정과 국내 민심을 얻는데 눈물겨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통성 있는 정권은 자칫 오만해지기 쉽다. 같은 노력이 없으면 오십보백보다. 세조는 문치가 아닌 강권으로, 인재 등용은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이었다. 비서실(승정원) 중심의 철저한 측근정치를 펼쳤다.

조선 왕조 최고의 대호불왕(大護佛王)은 세조다. 대군 시절부터 신미대사, 수미대사 등 고승과 친교가 두터웠다. 즉위하자 바로 배불정책을 외면했다. 호불은 선, 배불은 악이란 단순 등식에서 벗어나 세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없이 누워 있는 그를 광릉 숲 한적한 곳으로 모셔와 담소를 나눠볼까.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 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묵신한 착용감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아외용으로 최고입니다.
▶1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123cm×198cm×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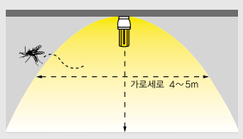
구입문의 : 080-788-7878
농 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 깔다구 퇴치램프!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중 합작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기,전구만 바꿔끼우면 간단히 해결

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에도 좋아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만점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모기스탑 퇴치범위]

●사용장소 : 사찰,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보경사 숲.


청호반새. 사진제공=원우 스님


보경염낭거미.


회화나무 수피.


흰띠왕가지나방.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2) 내연산 보경사

튼실한 자연 뛰어난 풍광 "금강산에도 없다"

한국화의 원형은 조선 후기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진경산수(眞景山水)라고 한다. 겸재의 진경산수 가운데 '고사의송관란도(高士倚松觀瀾圖)' '삼룡추도(三龍秋圖) 1·2' '내연산폭포도(內延山瀑布圖)' 등은 그가 경북 청하현감으로 재직할 때 내연산(內延山)을 오르내리며 그린 산수화이다.

포항 보경사(寶鏡寺)가 바로 그 내연산 산수 속에 자리한 신라고찰이다. 보경사 창건사에는 시기와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온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보배로운 거울을 들여와 묻고는 절을 지어 '보경사'라 했다는 줄거리만은 다름이 없다. 그 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원진국사(圓眞國師)가 크게 중창을 하였다.

주차장에 내리면 보경사의 사하촌인 덕곡(德谷)마을이다. 절의 덕을 입고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예전에는 모두가 보경사 소유였다. 덕곡마을 식당촌 뒤로 청하골 계곡물이 흐른다.


내연산 비하대소나무.

청하골에는 청호반새, 물총새, 노랑할미새, 물까마귀 등 물을 좋아하는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청호반새는 여름철새로 날개와 등쪽이 푸르다. 부리는 붉고, 머리는 검은모자를 쓴 듯하고, 가슴은 흰색, 배는 황갈색이다. 물총새와 함께 화려한 색조를 자랑한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주위로 노송숲이 그윽하다. 그 숲속에 회화나무, 말채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등 노거수들이 장로(長老)로 서 있다. 원래 이 숲의 좌장은 수령 800년 된 회화나무였다. 원진국사의 보경사 중창시기에 맞추어서 '800년'의 나이로 대접받은 이 좌장나무는 지난 번 매미 태풍 때 쓰러져 열반에 들고 말았다. 절집의 노거수는 살아있는 역사물이다. 노거수 목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속에 화재나 풍수해 등등 흔적이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노거수를 '생명문화재'라 한다.

800년된 회화나무 태풍으로 쓰러져
경내에 농수로 지나는 유일한 사찰
세계적 희귀종 '보경염낭거미' 서식

일주문 숲을 지나면 위쪽 계곡에서 수로가 내려와 보경사 경내를 지나간다. 이 농수로(農水路)는 사하촌의 수천만 평 넓은 들을 먹여 살린다. 경내로 농수로가 지나가는 예는 보경사가 유일하다.

보경사의 가람배치는 천왕문-오층석탑-적광전-대웅전을 중심축으로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한 천왕문-적광전-설법전-범종각 영역, 대웅전을 앞에 둔 팔상전-산신각-원진각-영산전-명부전-원진국사탑비 영역, 성보박물관과 승방 영역이 그것이다.

적광전은 금당탑비의 내용을 보면 1677년에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단이 외벌대라서 격이 낮아 보이지만, 대웅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절의 금당(金堂)이었다. 금당의 격에 맞게 기단부 석재가 모두 옥석이다. 옥석은 내연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적광전 신방목 양쪽에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방울이 달린 목걸이, 불거진 눈, 비대한 몸체 등은 천상 해태상이다.

명부전 앞에 중창주인 원진국사비가 보호각 안에 있다. 보호각 옆에 큼지막한 피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명부전 뒤로 일각문이 있어서 동암(청련암)으로 이어진다.

경내의 나무로는 종무소 옆에 있는 수령 400년의 소나무를 비롯해 피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등이 있으나, 요사채 마당의 두 그루 늙은 탱자나무가 가장 주목 받는다. 게시판 안내로는 수령이 400년이나 된다고 한다. 노쇠한 데다 풍수해까지 입어서 두 나무 모두 큰 줄기는 잘라지고 없다. 이 나무의 후손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바깥 담장께로 가면 건장한 탱자나무들이 튼실하게 자라서 생울을 조성하고 있다.

내연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이다. 일주문을 지나 청하골을 따라 오르는 계곡길과 일주문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난 능선길이 그것이다. 능선길은 일주문 앞에서 보경사 담장을 끼고 시작된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다닐만한 포장길 한 줄기가 산으로 올라가 있다.

보경사는 주변 자연생태가 튼실하다. 보경염낭거미 같은 희귀종 거미도 보경사의 생태가족이다. 세계적으로 표본이 3개체뿐이라는 보경염낭거미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보경사 주변에서 처음 채집하여 1979년에 '보경'이라 이름붙여서 등록했다.

소나무가 우점(일정 범위 안에서 가장 무성함) 하는 동암-능선-문수산-정상 지역은 송이가 많이 나는 곳이라 송이철이 되면 주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킨다. 일부 능선에서는 신갈나무들이 이 소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다.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오르다보면 등 뒤로 멀리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보경사 중창주인 원진국사 부도로 오르는 계단길도 이 길에 이어져 있다.

보경사로 돌아오면 그윽한 숲길이 절 앞을 지나 청하골 열두폭포로 이어진다. 큰절에서 서운암까지는 불과 300미터 거리. 서운암 앞 계곡에 시멘트로 만든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있다. 주위의 지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교각도 물속의 튼튼한 암반을 딛고 있어서 태풍 매미 때도 끄떡없이 견딜 만큼 튼튼하다.

청하골의 절벽들은 숨 가쁘지만, 산길의 경사는 그리 가파르지 않다. 보경사와 등산로 주변에서 관찰된 초본으로는 사초과의 몇 종류를 비롯하여 여로, 주름조개풀, 고마리, 바디나물, 가는장구채, 산괴불주머니, 큰개별꽃, 산박하, 투구꽃, 고깔제비꽃, 일월비비추, 족도리풀, 노루발풀, 금낭화, 더덕 등이 있었다. 지칭개, 개쑥부쟁이, 질경이, 민들레 등은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면서 퍼뜨린 초본들이다. 꽃이 핀 것으로는 노루오줌, 까치수염, 꿀풀, 기린초 등이 기록되었다. 절벽에는 바위채송화를 비롯해 부처손, 구실사리, 십자고사리 등 양치식물들이 붙어 있다.

상생폭포는 내연산 열두폭포로 가는 첫 폭포이다. 두 줄기 쌍폭으로 이루어진 이 폭포를 정시한은 <산중일기>에서 '사자쌍폭(獅子雙瀑)'이라 명명했다.

흰띠왕가지나방 한 마리가 움푹한 바위틈에 날개를 밀착하고는 낮잠을 즐기고 있다. 여름철 산간지역에 나타나는 중형 크기의 나방이다. 몸과 날개는 모두 암갈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다. 더듬이는 암수가 모두가 빗살 모양을 하고 있다. 보경사 경내에서 점무늬재주나방, 목도리불나방, 쌍복판눈수염나방, 왕눈큰애기바방 등 여러 종류의 나방을 만났다.

겸재의 '내연삼용추'는 관음폭포-연산폭포 등 연이은 세 폭포를 그린 것인데, 이를 두고 정시한은 <산중일기>에서 "금강산에도 없는 것"이라 예찬했다. 그러나 내원암과 계조암 등 그림 속의 암자들은 언제 폐사되었는지 흔적도 없다.

내연산 열두폭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음폭포에서 고개를 올려 쳐다보면 비하대(飛下臺)가 아스라이 솟아있다. 비하대는 정시한이 <산중일기>에서 중허대(中虛臺)라고 불렀던 절벽으로, 낭떠러지에 늙은 소나무 두 그루가 비스듬히 서 있다. 겸재의 '고사의송관란도'에 나오는 바로 노송이다.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가 반분(半分)하고 있다. 참나무로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다.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엄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붉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헛개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까치박달, 물박달, 고로쇠나무, 쇠물푸레, 팥배나무, 고광나무, 미역줄나무, 개벚나무, 굴피나무 등등이 울울창창한 터널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 망개나무에 눈이 가는 것은 속리산과 주왕산 등 몇 곳에서만 관찰되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학소대 석벽엔 부처손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붙어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석탑·석등·동물상·인물상·목불조각·수미단·조형물조각·옥불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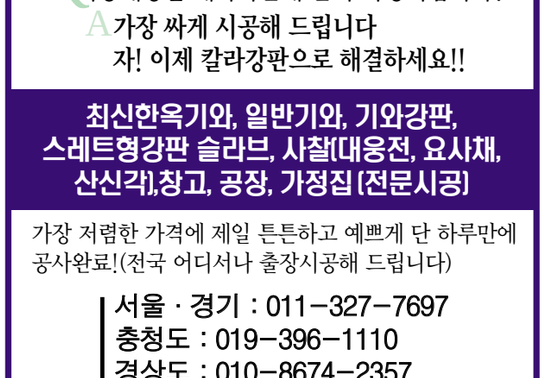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 일반기와,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11-327-7697
충청도 : 019-396-1110
경상도 : 010-8674-2357
강원도 : 010-7638-1117

현대칼라지붕공사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8월 4일 - 8월10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 가능)
• 시 작 날 - 8월 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8월 10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5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육임직지 한글판 출시

■육임의 720과전 상세히 수록
■생년월일을 몰라도 궁금한 일이 발생한 시간이나 사람을 만난시간에 해당과전만 보면 모든 사안 정단가능
■각 과전마다 필법(백법)을 해설수록
육임직지주해/세종출판사/소담주해
1권 갑자순 2권 갑술순 3권 갑신순 4권 갑오순
5권 갑진순 6권 갑인순 7권 부록
총 7권 180,000원 농협(조일흠) 815132-52-354445
H.P 017-844-7100
TEL 055)362-2799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담 환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참선 및 영어방 안내문

◆장 소 : 길상사 ◆교육기간 : 4년
◆개강일시 : 2007년9월10일
◆정 원 : 5명 교육비, 침식 무료
◆교육대상 : 40~55세 미만의 비구니스님
◆회화중심 : 초보자 가능
◆수 행 : 참선, 일상언어:영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1리 441번지 길상사
문의 041)541-7240~1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법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秘 法 전 수

*붓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충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도성사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재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점법스님 합장
033)747-6819
010-7443-3060

진실한 불자님께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공부(경전)하실 분
읽고, 쓰고, 행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살아생전에 가정이 행복하고 생과 사가
이어지는 다음생에 정토(극락)에 함께
가실 신심과 불심이 돈독하신 불자님을
초대해서 서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4호선 당고개역 부근)
017-874-3352
02)932-0735

청암(靑巖)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행자/학인모집

나는 이곳에 가야한다
수행을 걸쳐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여래종금강대약사사
www.yaksasa.com
031)734-3205
043)731-2261
010-9292-4828

도반으로 함께할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60세 이상으로 학력이 조금
있으신분을 환영합니다
(전화벨을 일곱번이상 울려주십시오)
055)883-8846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시킬 수 있는
정말 신심나는 실전
한글 천도재 의식비법
전수해드립니다
011-854-8107
무불합장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1-9204-5010

인연(나무약사여래불)

한의학, 민간의학으로 각종질병,암,난치병 치료를 보살행으로 수행정진하는 비구승으로 참된 자비행을 실천하는 곳이면 사찰 및 민간요양시설등 승속을 가리지 않고 무보시로 상주하면서 활인구제하고저 합니다
(불교의식, 사주철학 가능)
010-4561-5657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같이 지낼 스님, 행자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011-306-3504

부전스님 법당보살 및 처시님 구함

(50세 미만)
011-9176-4403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月보시금 100만원)
▷울산
052)227-0827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치원 인근
010-6430-0301
041)862-8093

비구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및 사무실 여직원 모십니다

042)272-1223

행자승 및 예비승 모집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차원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절 살림 맡아주실 보살님 구합니다
(노후 보장해드립니다)
▷효원사
011-856-45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2)854-0196
019-369-0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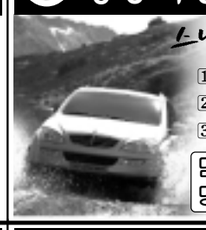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50~60세)

월 보시금 100만원
▷강원도 원주 지정면 간현역 부근
033)732-7969

봉 은 불 교 미 술 원

탱화 가르칩니다
◆일시 : 2007. 8. 5 - 2007. 10. 28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로 예약 받습니다.
TEL 041)541-3545/016-751-3545
홈페이지 참고 www.bo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93번지 불모 오재택

쌍용자동차 7월 무이자 실시


스님, 불자가족을 위한 특별판매
① 화물 5인승(자동차세 28500원)
② 차량계약금10만원으로 구입,인도까지
③ 최고 280만원 D.C(렉스턴)
담당 유기천대리 016-270-7197
차승엽대리 017-595-1211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예비스님) 모십니다.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영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 3개월 완성 ●속성반 :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을 법사님을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행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사주팔자, 빙의령, 질병에 얽힌 삼각 관계를 치유합니다

1.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신분
2. 무당굿을 해도 효과를 못보신 분
3. 우울증, 가위눌림, 정신질환, 사업실패, 가정파탄, 음주, 도벽 등등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왜 들어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 무속인, 전수함, 선착순 4명
031)241-3487 / 031)257-3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입종하시는분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 의 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진행법 등
● 모집 : 수시모집
맞춤식 개인지도 **8회 과정**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각 사암 등록 및 종도 모집 합니다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하며 넓은 도량에서 수행하여 미래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고원사에서는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행자 및 동자
■ 행자 : 55세 이하
■ 동자 : 5세이상 ~ 12세 이하
■ 문의 : 교무스님 010-4860-1824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054)382-3397 / 054)464-4725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69㎡(20평) ● 요사 : 105㎡(32평) ● 부지 : 1359㎡(411평) 외국 1698㎡(514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67㎡(20평) ● 요사 : 96㎡(29평) ● 부지 : 2,327㎡ (705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82㎡(24평) ● 요사 : 132㎡(40평) ● 부지 : 1,155㎡ (350평) ● 가액 : 7억3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웰빙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시(대둔산 인근)
● 임야 7만여평의 청정계곡에 참나무 찜질방과 포교당을 겸한 웰빙사찰터 (팬션별장도 가능),
● 가액 : 보신 후 결정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017-405-1554 (주인직거래)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5991 031)257-599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조정약수터 10분거리
● 부지670평 법당20평, 요사채 35평1동, 20평1동
● 충북문화재 21호 석불 있음 텃밭에 매실수 50부 절앞에 버스 다님 조용한 기도도량
● 가액 : 2억 4천만원
017-267-4479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80평
● 건평 : 12평(4칸 기와집)
● 마을끝집, 임법당, 방1, 주방1, 법당1
● 가액 : 2천 8백만원
011-544-59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877-7746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
● 부지: 200평(산자락)
● 법당: 목조 25평
● 요사채(3동):25평+10평+10평
● 바다가 잘보이는 도량, 정남향,주변경관최고
● 가액:6억5천만원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소재
● 부지: 3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목조)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5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의 정통 사찰임
● 위치: 마산시
● 부지: 약 100평
● 법당: 40평(2층)
● 요사: 40평(1층)
● 가액: 2억 7천만원
● 특징: 신도가 많은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구원, 주방 시설완벽
● 삼존불,각단탱화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7406-3866 018-557-5247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부지 : 약11,500㎡ (3,500여평)
● 지목: 전
● 천하명터, 소백산 준령이 한 눈에
● 가액 : 상담 후 절충 가능
011-582-4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도심 포교원)
● 평수:약 40평 법당, 요사채, 주지실,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즉시 입주 법회가능
010-5877-8630

사 찰 안 내
대둔산 도술봉 약사 기도도량
● 위치: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 대웅전, 칠성각, 산신당, 영협한 약사용궁, 천신당, 굿당
● 요사채(방4개, 화장실2, 다락1, 거실10평, 주방5평), 대지125평, 전445평 합570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 2개,
● 포장도로 완료, 마당까지 집입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211-4219 041)753-843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포교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도심사찰임대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 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찰(급)안내
● 위치 : 순창
● 대지 350평
● 대웅전1동,삼성각1동, 요사채1동
● 가액 : 임대 (상담 후 결정)
● 특징 : 약수1급수, 산세수려
※ 사정상급 양도
016-637-0034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약 1700평 허가면적:약 550평
● 건물:요사채,산신각포함 약100평
※현재 공사중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히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총 공사비만 약 4억 소요(가격절충)
011-9850-8208 055)572-04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팔달시장 앞
● 3층 건물의 3층 (50평)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관음기도도량
010-9317-9687

암자(급)안내
● 위치 : 보배의 진도 진도읍 염장리 래접산 영구암
● 대지:2500평,법당:약45평
● 삼존불, 탱화시설, 산신각 완비
● 요사채 약50평, 방4, 부엌
● 가액 : 2억 5천만원
061)544-0484 011-9928-0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사마을
● 법당 60평,요사채(슬라브),
● 땅 610평, 건물 130평
● 가액 : 3억6천만원
010-3351-1829 011-836-182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도로변)
● 평수 : 100평(4층, 5층 각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 1. 행자스님모집
2. 사물, 의식, 강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051)867-4567 011-857-1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 대지 660평 건평 53평 (법당 26평,산신당 17평, 요사채 10평) 양옥 신축 5년
● 유명한 약수 및 좋은 정원 있음
● 양도가 : 3억 6천만원
011-424-3252

별장및 팬션 · 사찰터 안내
● 위치 : 속리산 인접 쌍용계곡 접함 의상대사가 불통참선 하시던곳
● 대지 254평, 전 1920평 주변 국유지
● 가액 : 6억5천만원
011-9588-30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조용한 암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 해운대신도시에서 10분거리 조용한 암자
● 대지 : 56평
● 작은 임법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8-561-536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번지 6통 7반 지장사 4호선 당고개역 근방
● 임법당 : 40평
● 법당, 방3, 부엌2, 화장실2, 욕실2
● 마당있음, 전망좋음 전세 : 5천만원
010-2784-5277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제주시 2천세대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 최요지
● 법당, 요사, 집기 일체 완비
● 즉시 법회 가능
● 집세, 시설, 비품 합 950만원
017-393-1127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대지 91평, 법당 26평
● 요사 1,2층 20평(합 46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 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55)372-01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총 6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는 절충 시설비 2천만원 시설은 최상급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함
055)338-132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상가 3층
● 포교법당 손색없는 최고시설, 방2, 주방 및 거실1, 샤워장1
● 보증금 8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총 2100만원 (반액가 제공)
● 불기구 일체 무상제공 몸만가니 몸만오면 만족할것
011-458-29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근교
● 부지 : 800평
● 대웅전 외 건물 2채
● 주변경관 및 전망좋은 최고의 위치 ● 가액 : 25억
※부산근교 사찰 매물 다량보유 삼성공인중개사 사무소
011-9239-1462 051)531-663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표충비각근교) 국도변위치 밀양시내에서 10분 대구, 부산 30분거리
● 대지: 약200평.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법당 20평(아미타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일절
● 가액:1억 9천 8백만원 (융자 7000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8877-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은행융자 1억5천 가능 즉시 법회가능
●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산밑 산장빌라 14평 (번왕사 절)
● 스님이주관계로 포교당 급양도
● 전세 1100만원
010-7135-40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부산, 대구, 김해, 마산, 창원 인접
● 법당 목조단청 필
● 삼성각, 요사채 – 현대식 30평
● 목조 황토방 20평 1동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급 양도(전세, 월세)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575-0396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딴 사람이 천둥 번개 쳤다니깐 귀머거리는 천둥 번개가 어디 있느냐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써서 얘기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마는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四大)와 세상, 오온(五蘊)이 다 공(空)한 줄 알게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이 뜻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을 한생각 뉘우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난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 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향 했습니다. 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 한지 아십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죽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일임해서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혜향'했습니다. '혜향'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이게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부터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서,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놓게 되면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한 죄업이 얼기설기 다 묶어진 것을 풀게 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그러니깐 억겁의 업보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의 법, 무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내는 것이 항상 밝으니까,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깐 무엇인들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요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無)'자 화두를 가졌다 또 '이 뭣고?' 화두를 가졌다, 어떤 화두를 가졌든지 간에 그 화두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낸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깐요, 이 바탕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화두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이것이 근본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는, 이게 제사 지낼 때 위패 놓는 거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을 조성해놨을 때에는 '바로 저 부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요, 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두 든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벌써 화두로 정해졌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화두로 정해졌는데 바깥에 또 화두를 쥐고 있으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기계 한 귀퉁이가 고장이 나가지고선 만약에 막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생활도 바로 놓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을, 밀려서 부닥치고 부닥치면서 사람이 고를 겪고 그러지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서 자업자득으로 생활을 해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보십시다. 이 우주 전체가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금강자석이라고 한다면 금강자석에 의해서 그 빠른 힘이 있어서 물이 이 지구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져왔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별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죽거릴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이 떠다니다 떠다니다가 한데 모아진 것이 바로 지구덩어리라고 본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금강자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자석에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자석에 의해서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체가 없는 마음이 마음을 동작을 시키는데 이것을 다 놓고 돌아간다면 자석에서 붙을 건 붙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해서 분해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석이 떨어질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가? 이 금강자석이라는 것은 물건인 쇠자석이 아니라 체가 없는 자석이라서 예를 들어 헝겊 쪼가리도 붙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겊 쪼가리든지 쇠 쪼가리든지 다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보십시오. 그 자석에다가 쇠를 하나 붙여보면 그 쇠 붙인 데가 또 자석이 돼서 다른 게 또 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능동적이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금강자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믿어 하고 업신여기고, 바깥으로 신을 찾아서 '아이고 저 위대한 신을 내가 찾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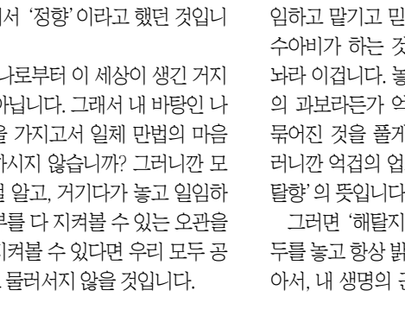
☞18면으로 계속

2007년 동양의학방송국 여름특강 개설

동양의학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동양의학방송국 여름방학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한약처방에 대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 강좌기간 : 2007년 8월 6일 ~ 8월 30일 까지
▣ 강좌시간 :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
▣ 강좌내용 : 각4시간 (중의방제학-방약합편: 한약처방학)
▣ 강 사 : 동양의학방송국 대표강사(덕운스님)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 문의전화 : 02)3487-2311
▣ 보 시 금 : 30만원
▣ 접수기간 : 2007년 7월 25일 ~ 31일

※ 장소관계로 인해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동 양 의 학 방 송 국 (www.dytv.co.kr)

여래심지요문릉가경
如來 心地要門 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져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2조 혜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줄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이신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시간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수 강 료 : 6개월 25만원
◆ 자 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2매, 신도증 사본 1매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입 금 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서류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법경 합장

내가 나온 곳이 화두이니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17면에서 계속

면 잘될 테지.' 하는데 타의에서 찾는 그 마음은 다 지금부터라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안에서 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고 탐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책 한 권 끼고 공책 하나 들고 연필 하나 가지고 책 보따리를 어깨에다 척 둘러매고 가서 공부를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벌써 변천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하던 그 방식으로 자손들을 키운대도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음의 에너지로 하여금, 그 금강자석의 에너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끌려서 한데로 새지 않게 만드는 자석을 가지고 해야지, 몸을 불들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뜩이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데 말입니다. 허허허,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부는 죽고 사는 게 없고 또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는 우리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부

오분향은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입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씨들도 자기 자석에 의해서, 그 자석의 위력이 딴 데로 새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 허수아비 같은 육신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는 법입니다. 육신은 개방시키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자석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놔지고 능동적으로 지혜 있게 활용을 하면서 걸림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견성해가지고 성불로 가는 도중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 아직 발로가 되지 않은 분이 있고 발로가 돼도 지금 발걸음 하나 떼놓을 수 없는 형상인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층으로 나누어봅시다. 발로가 된 분에 한해서는 그때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그 금강자석은 내면에서 묵직하게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유위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무루(無漏)의, 진여(眞如)의 무한 능력을 가진 마음이 동시에, 몸이 일을 할 때는 진여의 능력이 뒷받침해 주고, 또 무루의 마음을 한 생각 내서 체가 없이 일을 하는 데는 또 오관을 통해서 몸이 뒷받침을 해 주죠. 이렇게 양면을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佛)과 법(法)입니다. '불성과 법이 둘이 아님으로써 승보(僧寶)도 그러하니라.' 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자 바로 우리의 행이며 말이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것을 고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놓고 참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것도 참선이요, 말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참선입니다. 만약에 그 근본을, 그렇게 돼 있는 근본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자재할 수 있죠. 놓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했다고 일년 이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한계가 있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한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셋째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또 첫째 일요일날 설법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 이렇게 아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도 다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돌아가나 하고 한번 툭툭,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쳐보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참으로 지금 공부하는 분들, 우리 한마음선원 도량에 흡족하고 기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납득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납득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납득을 하고 우리 생활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겠죠.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가는 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모든 걸 아주 자재력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불성의 그 능력을 다 갖이 한 주먹에 쥐고, 이것은 한 손에 들은 걸로써 한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6, '88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마는 우리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이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모두가 참 공평하지도 못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참 살기가 극난하다고 봅니다. 살기가 극난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 · 25를 지내봤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 · 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겠어!' '지금 우리 방석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못 댄다!'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석은 약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자석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는 조직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직체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런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심, 즉 말하자면 금강자석이 있는 것을 홀딱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석을 그 쪽에다가 붙여주죠. 그쪽 자석에다 붙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석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이루종차 가르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해라.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이 자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서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는 무대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뛴다면 이거는 정말 시쳇말로 '왔다'입니다. 응?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바로 50%의 미완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겁 전년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나오면서 인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학습 도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부하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탐구해 가지고 지구 자체의 색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생각으로서 일체 만법의 능력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어서 바로 우주적으로도 삼천대천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능히 한생각에 그쪽으로 고개를 끄떡만 해도 벌써 거기 가서 같이 상응하면서 한번 거기서 하루 동안 살아보기도 할 겁니다. 하루 동안 살고 여기 왔더니 벌써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던가요? 또 하루 동안 살았더니 아, 일년이 됐답니다. 하루 동안 살았더니 만년이 됐다 합니다.

이 뜻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하루다 이틀이다 한 달이다, 또는 가을이다 봄이다 이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을 하세요!

렇게 사계절을 정해놓은 거니 우리가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사계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나투어서 빨리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한 거지…. 여러분이 참 그거를 납득해서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본을 스님들한테도 자꾸 여쭤보고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싹이 났다고 해서 내가 나라고 세우고 모두를 내 눈 아래로 본다면 그것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나가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꿈에 보인다고 하면서 꿈과 현실을 가리는데 꿈에 이러이러해서 나는 요런 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왜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꿈도 현실이요, 현실도 꿈이니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데서 내 중심을 잡아서 주인공에 탁 놓고 놓은 자체를 생각할 때 믿음직하게 듬직하게 하면 바쁜 것이 바쁘지도 않아! 그랬는데 내가 바쁘지도 않은 사이에 벌써 일은 돌아왔어. 일은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꿈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꿈에 알았으면 나를 공부시키려는 조짐이구나 하고 좋게 돌려서 놓고, 놓고 또 가다 생각나면 또 한 번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또 놓아! 그걸 노상 붙들고 가면 그냥 죽죽 오는 것이, 오는 것도 없는 게 오는 것이 그냥 막혀버리면 살림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살림을 어떻게 걸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에서 한 대목을 설해주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봐라."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 이 몸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더랍니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렵지 않은 거를 내가 다 하는 거를,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뜀이 없이 내가 한다는,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갖추어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오조 홍인 선사나 육조 혜능 선사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이쪽 쇳덩어리가 저쪽 쇳덩어리로 한데, 예를 들어서 자석과 같이 붙어버린 것처럼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네가 가는 것이니 이 바리때와 가사 장삼을 가지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바리때나 가사 장삼이 법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날 싸움이 날 테니 이건 네 대에 없애라." 이럭하고선 마지막 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볼 때에, 서로 둘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뜻이 맞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뜻이 맞지 않으나 맞으나, 이것이 뜻이 맞지 않게 말을 해서 저쪽 상대방에게 해로울 기세가 보이고 또 역정을 낼 것 같으면 말은 하지 말고 안에다가 놓으면, 거기에다가 일임해서 놓으면 바로 그쪽 자석으로 염파가 가죠. 오관을 통해서 다 염파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간 법계는 거미줄같이 전부 허공에 쳐져 있다 이겁니다. 아마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본다면 한 부분이라도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년 7월 21일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랜드 사태로 본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여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중에 있다.

사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었던 충돌이라는 점에서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랜드 사태는 단지 개별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국적인 노사갈등의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하나는 이랜드가 선택한 방식으로 집단해고 또는 외주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 법안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와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에 의한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11월 20일 비정규직 입법이 통과 된 직 후 법원행정처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을 계약 해지 하였으며, 이어 서울대 병원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의 비정규직 20명을 계약 해지했다.

같은 날 철도공사도 새마을호 승무원 113명을 계약 해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위탁시켰다. 또한 외주화의 경우 고용이나 임금 모두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노사가 협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개선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지난 해 말 우리은행 노사는 임단협에서 입지급 창구를 전담하는 창구텔러 등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에서 비정규직의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바꾸었다. 외주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산업이나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이 처한 조건의 차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해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체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숙련 정도 등 업무의 특성, 노조 유무, 고용관행, 인사노무관리의 특징, 내부 규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달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해법을 개별 기업이나 업무 혹은 산업의 특성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85.3%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에 비해 40.9%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해법을 이들 기업의 능력이나 선택에 맡길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혹은 고용개선은 개선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선택이 비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도 동일하다.

다만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를 호소하면서 이랜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내부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규직 근로자 및 노조가 스스로 고용안정 및 인금인상을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차별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법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와 사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여 보다 넓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때인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1.종교교육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중·고교 종교 과목 필요성·한계 명확히 해야

특정종교 예배의식 못지않게 교리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나마 대학교의 경우 여러 학기의 강제 채플과 달리 종교과목은 졸업 때까지 한 학기만 이수하면 되지만, 종교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한 시간씩 3년에서 6년간 본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특정종교의 교리를 배워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다. 특히 개신교 학교의 경우가 강제성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 수로 보아도 불교계는 기독교계의 1/10에도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도그마성이 적은 불교 교리의 특성상 타인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영향은 기독교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불교계 학교가 개신교 학교 흉내를 내 학생들에게 불교교육을 강제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불교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명분은 물론 현실적 실익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종교과목의 편성을 살펴보자.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지침에는 "종교과목을 부과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 학교는 종교 단일 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 반면에 개신교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26개교가 고집스럽게 종교과목을 단수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단수 개설이나 마찬가지인 학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편법이란 문서 상 복수로 편성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종교과목만 가르치는 경우, 복수과목 편성이라는 '번거로운' 요구를 피하기 위해 종교과목 대신 철학과목을 개설한 다음 실제 수업은 종교교과서를 가지고 성직자가 가르치는 경우, 정규수업 시간이 아닌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석군 소송에서 피고인인 대광학원측도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 편성을 의무화한 고시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법규성이 없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실정이다. 법률적 해석의 틈을 노려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속셈이다.

종교교육의 내용도 문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명시된 종교교육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고 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종교교과서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세계의 종교와 문화', '한국의 종교와 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 위주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가 제시하는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이 올해초 개최한 2007년도 교육부 종교교육과정 개정고시안에 대한 심포지엄 모습.

교육당국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은, 종교과목에 대한 분명한 교육목표에 비해 그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하게 둠으로써 학교의 편의나 종교교사의 자의에 따라 왜곡되게 운영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여섯 개의 교육목표별 비중·수준·강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마지막 부분인 '특정종교의 경험과 신앙심 키우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결국 타종교 학생들의 특정종교 강요까지 정당화되는 것처럼 주장하게 만든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는 '고시'를 매년 반복해서 하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수학권과 학생의 종교인권의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종교교육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를 가능한 한 치밀하게 다듬어 놓아야 한다. 시행령 또는 더 바람직하게는 그 상위 법규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 지원 축소 등 단호한 벌이 뒤따르도록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제도로는 종립학교가 촘촘하게 쳐 놓은 그 물망을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 타종교 학생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특정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종립학교일지라도 특정종교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가 아닌 이상 국·공립학교에서처럼 아예 종교교육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무리라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범위와 한계 등을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데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한 바 없는 강제 종교교육, 이젠 사라져야 한다.

불자의 눈

이명박 후보 '제대로' 사과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가 서울 시장 시절의 '서울시 봉헌' 발언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19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에서다. 이 후보측이 배포한 청문회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검증위원인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이 "(서울시 봉헌 발언은) 정서적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가 오해 없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교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자신의 심경만 밝힌 셈이다.

이 후보의 '서울시 봉헌' 발언은 2004년 5월의 일이다. 3년이 넘은 지금, 이후보가 검증 청문회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말로 당시 불자들의 분노를 덮으려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시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았겠느냐는 짐작도 금물이다. 이 후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럴수록 그 발언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와 염려가 높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청문회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염려스럽다.

시간 관계상 공중파 방송에는 중계 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불자들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참회'로 달라진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후보는 보다 명료한 말과 보다 깨끗한 표정으로 불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을 향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 세계화 '템플스테이'

조계종이 강원도 고성에 대규모 국제템플스테이 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의 조계사 인근에는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를 세운다고 밝혔다. 모처럼 의미 있는 불사를 종단차원에서 기획한 것 같아 반갑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 이 화두를 푸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크게 보면, 해외로 나가 직접 한국불교를 알리는 방법과 외국인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여 한국불교의 맛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언어의 장벽을 비롯해 갖춰야 할 조건이 많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가장 한국불교다운 면모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면 족하다. 그 방법으로는 당연히 템플스테이가 꼽힌다.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철저한 체험을 통해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근원을 체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당 쓰는 일에서 참선과 108배 등 일상과 수행을 둘 아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핵심인 것이다.

고성에 건립될 국제템플스테이 센터야 말로 지난 몇 년 동안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불교의 세계화 코드로 집약할 수 있는 전당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서울 조계사 인근에 세워질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가 전국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각종 프로그램을 한 눈에 파악하고 동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튼튼한 두 날개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불사가 아무런 잡음 없이 회향되어 한국불교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터전이 되길 빈다.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7월 28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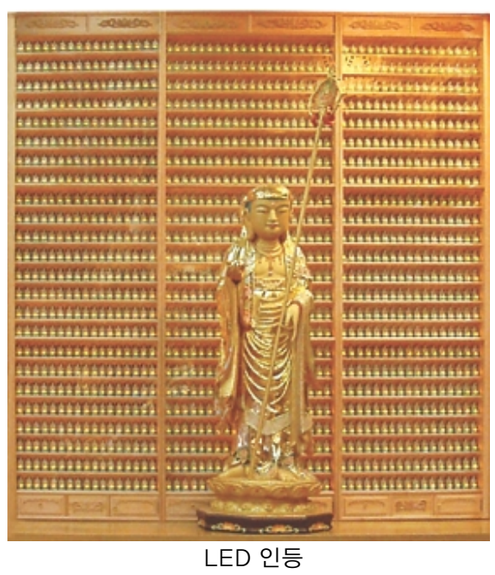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팔각봉축접등 / 청사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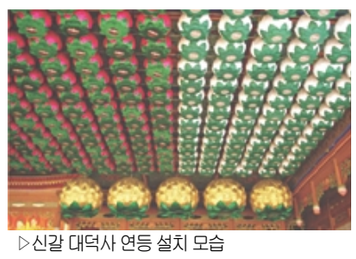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종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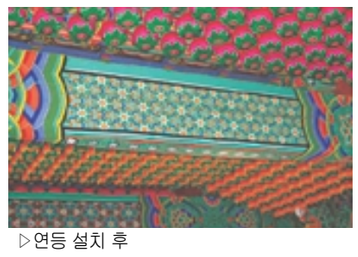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하, 하, 夏~

휴식과 수행으로 윳자

여름 특별기획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새벽이 없는 날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마다 깨어 있지 못했다.
깨어 있다는 것, 깨어난다는 것의 숭고함은
새벽에 깨어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山寺.
별빛에 촉촉이 젖은 고요를 뚫고 실눈 뜨는
산사의 새벽에 나도 함께 깨어난다.

새로운 새벽이다.

새벽이 새로운 것은 새 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기원과도 같은 설렘이 있기 때문.

살아오는 동안 한 순간도 나를 떠나 본 적 없지만
새벽 숲길을 걸으며 나를 떠난 곳에서 나를 바라본다.
내 안에서 꿈틀대던 그 많은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들
새벽 숲길을 걸으며 조금씩 밖으로 떠나보낸다.

별 것도 아닌 것에 왜 그리 속 끓이고 살았던가?

한발 한발 내딛는 새벽 숲길은 비워냄의 길이다.
나를 비워 내며 나를 바라보는 업경대(業鏡臺)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 어떻게 다른가?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나를 묻는 순간 나는
온전한 나를 만난다.

나를 비운 곳에서 나를 만남으로써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한다.

산사의 새벽 숲길을 걷듯 하루하루를 걸으리라.
별빛이 물러가듯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 내리라.
채우기에 바빴던 나의 둥지를 비우고 날아가리라.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구 능인고 교사들의 전등사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장면.
관련기사 22면



목판에 '미소상'을 새기며 미소짓는 삶을 염원하는 유상은 선생님.

대구 능인高 유상은 선생님의 전등사 템플스테이

"내 안의 나 찾은 행복한 시간"

올 3월 대구 능인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한 유상은(25) 선생님은 방학을 하기 무섭게 선배 교사 14명과 강화도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불교 전통문화 체험 템플스테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7월 16일 오후 2시 입제하여 19일 정오 회향시간까지 알차게 짜인 프로그램들이 새내기 선생님을 제법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운 건 아니었지요. 고등학생 시절, 순천 송광사 포교원 대승사에서 불교학생회(목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탄탄한 내공'이 있으니까요. 아닌게 아니라, 유상은 선생님은 고교시절 방학만 되면 송광사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빡세기로 소문난 수련회도 나름대로 즐기던(?) 열혈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범대(공주대학교)를 다니며 멋진 교사가 될 미래를 꿈꿀 때마다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염원을 품었었지요.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조계종 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으니까요.

전등사 템플스테이는 고요함입니다. 빡빡한 일정표에 이끌려가는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수행과 체험 그리고 자기 반조의 시간이 적당히 안배된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지요. 유상은 선생님은 무엇보다 새벽 숲길을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새벽예불과 108배에 이어 전등사를 둘러싼 정족산성을 걷는 포행길이 좋았지요.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대지의 신선한 기운과 큰 나무들이 뿜어내 주는 맑은 공기 그리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멀리 북한산 자락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순간은 말로 표현 못할 행복감에 젖어드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절집에서의 하루는 바루공양과 운력, 전통문화체험, 예불, 참선 등으로 이어지는데 어느 시간도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숲길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었고 '나 속의 나'를 만나 행복한 하루를 약속했으니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전통문화 체험 시간에는 짭짤한 '살림'을 장만하니까 흐뭇했답니다. 한지공예의 대가 김인숙 선생님(이레공방 대표)의 지도로 아담한 반짇고리와 멋진 전등(스텐드)을 만들었거든요.

또 서각가 김정규 선생님께 기초를 배워가며 목판 작품 '미소상'을 새겼으니 푸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충만감이 있기에 "1080배의 용맹정진 뒤에 느끼는 성취감은 템플스테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학교에 출근하면 맨 처음 찾는 곳이 법당이라는 유상은 선생님은 "종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만큼 불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는 포교가 되기 때문"이지요.

주말이면 대구 삼보사로 달려가 불교학생회를 지도한다는 유상은 선생님은 "데이트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럴 사람이 없어요"라며 웃지만,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학생회를 돌볼 것만 같습니다.

전등사/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7~8월간 템플스테이 일정

지역	사찰명	전화	프로그램	날짜	대상
서울	조계사	02-732-5292	템플라이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외국인
서울	묘각사	02-763-3109	내마음 내려놓기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누구나
서울	길상사	02-3672-5945	여름 수련회	7월 29일~8월 1일	일반인
				8월 3일~5일	일반인
				8월 10일~12일	어린이
			주말 선수련회	매월 넷째주 주말(토, 일)	성인
고양	흥국사	02-381-7970	청소년 파라미타 수련회	7월 28일~30일	중고등학생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2일~24일	초등학생
			주말 템플스테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가족, 일반인
			일반인 수련회	8월 5일~7일	성인
여주	신륵사	031-885-2505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9일~31일	어린이
			가족 템플스테이	8월 24일~25일	가족
			성인 선 수련회	7월 22일~25일	성인
			청소년 수련회	8월 1일~3일	청소년
			가족 수련회	8월 6일~8일	
강화	강화국제연등선원	032-937-7033	청소년 영어 캠프	2차: 7월 30일~8월 2일 3차: 8월 6일~9일 4차: 8월 13일~16일	초, 중, 고등부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5차: 7월 30일~8월 2일 6차: 8월 6일~9일 7차: 8월 13일~16일	성인
공주	마곡사	041-841-6226	어린이 수련회	7월 27일~ 29일	초등학생
			청소년 수련회	8월 3일~5일	중고등학생
			가족 템플스테이	7월 27일~28일	소년소녀가장
			일반 템플스테이	8월 25일~26일	누구나
공주	영명사	041-857-1854	여름 불교학교	7월 28일~30일	누구나
			백련축제	8월 3일~5일	누구나
			일반 템플스테이	8월 6일~7일	성인
서산	부석사	041-662-3824	부석사 템플스테이	매주 주말 (매월 3째주 팀조 템플스테이)	누구나
			어린이 한문학당	7월 말~8월 초	초등학교
예산	수덕사	041-337-6565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1차: 7월 28일~29일	어린이
				2차: 8월 1일~4일	일반
				3차: 8월 8일~11일	일반
				4차: 8월 15일~18일	일반
				5차: 8월 25일~26일	교사 (가족동참가능)
김제	금산사	063-548-4441	禪-나를 깨치다 7기	2차: 8월 3일~7일	성인
				3차: 8월 13일~19일	
			어린이 영어캠프	7월 27일~29일	초등학생
				8월 3일~6일	성인
			산사체험	8월 24일~25일	누구나
남원	실상사	063-636-3031	실상사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누구나
			화림원 스님과 함께하는 단식 좌선	1차: 7월 26일~29일	누구나
				2차: 8월 3일~5일	
				3차: 8월 10일~12일	
				4차: 8월 17일~19일	
부안	내소사	063-583-3035	(건강증진형)트레킹템플스테이	5월부터매주 주말(토, 일)	누구나
			생태체험형	매주 주말(토, 일)	가족대상
해남	미황사	061-533-3521	한문학당	7월 29일~8월 5일	초등생 25만원
해남	미황사	061-533-3521	한문학당	8월 8일~15일	초등생 25만원
			참사람의 향기 (단기출가수행프로그램)	3차: 8월 18일~25일	일반인, 학생
				4차: 9월 15일~22일	
				5차: 12월 15일~22일	
			고요한 소리	상시	일반
해남	대흥사	061-535-5775	참선수련회	8월 16일~22일	경험자
			제2회 초의선사다도 아카데미	8월 1일~5일	개인, 가족
			(개인 휴식형) 새벽숲길로 가는 여름	6월 20일~8월 20일 상시운영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족문화형)가족과 함께하는 숲속마을 템플스테이	5차: 7월 25일~28일	가족대상
				6차: 8월 8일~11일	
				7차: 8월 15일~18일	
구례	화엄사	061-783-7600	일반부 여름 수련회	1차: 7월 28일~31일	성인
				2차: 8월 3일~6일	
			간화선	8월 10일~14일	성인
보성	대원사	061-852-1755	대원사 템플스테이	매주 주말(토, 일)	일반인
순천	송광사	061-755-0107~9	초등학생 여름 수련회	8월 9일~11일	초등생 100명
			성인 및 청소년 여름 수련회	4차: 7월 29일~8월 2일	성인·청소년 100명
			중, 고등학생 여름 수련회	8월 5일~7일	중고생 100명
장성	백양사	061-392-7502	고불총림 참사랑수행 템플스테이	7, 8월 중 4회 실시	성인
김천	직지사	054-436-6084	휴식형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개인 및 가족
			어린이 여름수련회	7월 27일~29일	어린이
			일반인 템플스테이	8월~8월 중순까지	성인
경주	골굴사	054-744-1689	선무도 주말 템플스테이	연중 상설, 주말 프로그램 별도 운영	누구나, 외국인
			청소년 화랑 수련회	7월 15일~9월 1일	청소년 200명
경주	기림사	054-744-1701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월 27일~29일	어린이
			기림사 템플스테이	상시	누구나
합천	해인사	055-934-3110	기초 수행 수련법회	4차: 7월 31일~8월4일	성인
			중고등부 수련법회	8월 7일~8월 10일	중, 고등생
			초등부 수련법회	8월 14일~8월 16일	초등학생
양산	통도사	055-382-7182	일반인 수련회	3차: 7월 26일~29일	성인
			청소년 수련회	8월 4일~6일	중등부
				8월 8일~10일	고등부
부산	홍법사	051-508-0345	놀토 학교 프로그램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초등학생
			어린이 여름 수련회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부산	범어사	051-508-3122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9~31일	초, 중, 고등학생
				8월 2일~5일	
				8월 10~12일: 중고등부	
			어린이 불교학교	7월 25일~29일	어린이
				7월 29일~31일	
원주	구룡사	033-732-4800	구룡사 수련회	2차: 7월 25일~28일	성인
				3차: 8월 8일~11일	
				4차: 8월 22일~25일	
동해	삼화사	033-534-7661	삼화사 템플스테이	상시(휴식형),주말 프로그램	누구나
평창	월정사	033-332-6664	박물관 어린이 수련법회	7월 27일~29일	초등학생
			일반인 여름 수련회	1차: 8월1일~4일	누구나
				2차: 8월 9일~12일	
				3차: 8월 15~19일	

7~8월간 어린이 청소년 캠프 일정

지역	사찰명	전화	프로그램	날짜	대상
서울	법장사	02-971-0303	여름캠프	7월 27~29일	초등학생
				8월 3~5일	중고등학생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	02-6012-1731	영어캠프	8월 4일	초등학생
여주	신륵사	031-885-2505	여름불교학교	7월 29~31일	어린이
화성	용주사	031-239-9391	여름효행수련원	7월 26~28일	어린이
				8월 8~11일	청소년
강화	국제연등선원	032-937-7033	청소년 영어캠프	7월 말~8월 16일	초중고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7월 30~8월	중고등학생
평창	월정사	033-332-6664	박물관 수련법회	7월 27~29일	초등학생
공주	마곡사	041-841-6226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7월 27~29일	초등학생
서산	부석사	041-662-3824	어린이 한문학당	8월 3~5일	중고등학생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예산	수덕사	041-337-6565	여름 선수련회	7월 28~29일	초등학생
부산	홍법사	051-508-0345	여름수련회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부산	범어사	051-508-3122	여름불교학교	7월 29~31일	초등학생
부산	여여선원	051-852-8679	여름불교학교	7월 28~29일	초등학생
부산	혜원정사	051-866-7771	여름불교학교	7월 28~30일	어린이
부산	관음사	051-294-9300	여름불교학교	7월 28~30일	어린이
부산	미타선원	051-253-8687	여름불교학교	8월 4~5일	초등학생
대구	은적사	053-653-1572	여름방학 한문학당	7월 26~8월 1일	어린이
			숲속 여름학교	8월 2~4일	
영천	은해사	054-335-3318	여름수련법회	7월 28~30일	초등학생
경주	골굴사	054-744-1689	청소년 화랑수련회	7월 말~9월 1일	초중고
경주	기림사	054-744-1701	여름불교학교	7월 27~29일	어린이
김천	직지사	054-436-6084	여름수련회	7월 27~29일	어린이
합천	해인사	055-934-3110	여름수련법회	8월 7~10일	중고등학생
				8월 14~16일	초등학생
양산	통도사	055-382-7182	청소년수련회	8월 4~6일	중학생
				8월 8~10일	고등학생
양산	통도사	055-382-7182	여름수련회	8월 4~6일	초등학생
해남	미황사	061-533-3521	한문학당	7월 29~8월 5일	초등학생
				8월 8~15일	
순천	송광사	061-755-0107	여름수련회	8월 5~7일	중고등학생
				8월 9~11일	초등학생
부안	내소사	063-583-3035	트레킹템플스테이	7월 말~8월 13일	초등학생
김제	금산사	063-548-4441	여름 수련법회	7월 27~29일	초등학생
남원	실상사	063-636-3031	불교문화체험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월명사 입시기도 안내

수능 고득점 100일 합격기도

■ 입재 : 2007년 8월 8일 ■ 회향 : 2007년 11월 15일

•특 보 1. 수능 고득점 예상문제 제공(단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2. 수험생 사주 풀이해서 원하는 대학합격
3. 수능 50점 점수 따기 작전

•기도시간 • 문 과 : 월 · 수 · 금요일 오전 5:00 ~ 6:30 / 오후 2:30
• 예체능실업계 : 화 · 목요일 오전 5:00 ~ 6:30
• 이 과 : 토 · 일요일 오전 5:00 ~ 7:00
월 · 수 · 금요일 오후 3:30 ~ 5:00

수능 고득점 합격 위한 매월 음력 8일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 합격정진기도

• 1차 성지순례 : 7월 21일(음 6. 8) • 2차 성지순례 : 8월 20일(음 7. 8)
• 3차 성지순례 : 9월 18일(음 8. 8) • 4차 성지순례 : 10월 18일(음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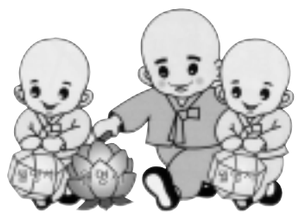
⦿ 출발시간 : 매월 오전 7시 ⦿ 장 소 : 월명사 앞

※대상 : 고1, 고2, 고3, 재수생 ※ 합격위한 월명 수능 법요집 제공

관음기도 도량 월 명 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11층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조계사방향 70M 시내버스 정류장) ☎ 02)732-0835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02-321-459
국민은행 006001-04-122958 (예금주:김철홍)



BBS불교방송이 함께하는

2007학년도 후학기 (서울·부산)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2년제 4학기 / 주간, 야간]



대원불교대학
서울 마포구 마포동 다보빌딩 3층 ☎02)707-1072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1. 모집과정 (서울 · 부산)
- 입 문 과 정 ■부산 (주간, 야간반 00명)
- 대 학 과 정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야간 각100명[주 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야간반 30명[주 2회 출석/야간 오후 7시]
- 통 신 과 정 : OO명[대학원은 제외]

2. 강의시간 : 주간-오후 2시 ~ 4시 40분 / 야간-오후 7시 ~ 9시 40분

3.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포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6월 18일 ~ 9월 15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 02)707-1072
부산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전화 신청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7.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외환은행 630-005063-139 [예금주 : 대한불교 진흥원]
※카드결재 가능, 장학혜택-부부(가족)입학시 50%, 성적우수자 50%, 30%, 스님 30%

8. 특전
▶불교학과 졸업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 불교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정상담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오솔길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이보다 시원할 순 없다


시원한 물줄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씻어주는 밀양얼음계곡.

초록빛 청량한 날갯짓이 이끄는 길의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한여름을 향해 거듭 드세지는 녹음 속에서도 북적거리지 않는 작은 계곡과 오솔길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끝없이 '나'를 묻는 내내 서두름 없는 발걸음을 좇다 보니,
폭염처럼 들끓던 마음마저 무색해진다. 그럴 땐 템플스테이도 좋은 휴식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외국인들조차 심신을 위안 받고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 산사를 찾는다.
명상과 휴식, 다도, 특별한 체험이 있는 절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담한 계곡으로, 울창한 숲길과 폭포가 쏟아지는 피안으로 가는 피서.
여름에 가면 더 좋은 산사를 꼭 집어 소개한다.

글 · 사진 유철상(여행작가, 월간<AB-ROAD> 편집장

냉장고 보다 시원한 피서지, 밀양 표충사와 얼음골


울창한 송림속 표충사 전경.

산이 많아서일까? 밀양에는 유난히 절이 많다. 많은 절 중에서도 들러볼 만한 곳은 역시 표충사다. 호국성사를 기리는 표충사당과 고찰이 함께 공존하는 모양새가 유교와 불교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임을 말해준다. 표충사 주위는 송림이 울창하다. 석탑과 사우들도 정갈하다. 특히 유품전시관을 두고 해마다 향사를 지내는 등 사명대사의 호국성지로 유명하다. 경내에 있는 영정약수는 신라 흥덕왕의 셋째 아들이 이 물을 마시고 나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할 정도로 좋은 물이다. 표충사에서 지척거리에 있는 얼음골도 필수 코스. 밀양의 재약산(천황산) 북쪽 중턱의 골짜기 3천 여 평을 얼음골이라고 한다. 계곡입구에 들어서면 냉장고 속에 들어간 듯 시원한 얼음바람을 맛볼 수 있다.

DATA:문의 055-352-1070, www.pyochungsa.or.kr
▶경부고속도로 언양IC에서 나와 24번 국도 타고 가다 석남터널 지나 20분 정도 가면 표충사. 표충사 앞 검문소에서 좌회전하면 얼음골 입구. 얼음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2Km 더 가면 얼음골 주차장.

마음까지 시원~트레킹 템플스테이, 부안 내소사


내소사 직소폭포가는길의 트레킹.

내소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인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레킹은 내소사에서 직소폭포까지 1시간 정도 계곡길을 따라 오르는 코스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직소폭포의 우렁찬 물소리가 들린다. 직소폭포는 30m 높이에서 물줄기가 소를 향해 내달린다. 푸른 소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폭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직소폭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직소폭포까지 오르는 계곡길은 경사가 험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완만하다. 서해바다가 보이는 관음봉으로 내려오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3시간 정도 호젓한 자연에 취할 수 있는 트레킹은 참가자 100%로 만족하는 코스다.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짧은 시간의 여행만으로도 큰 울림과 긴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이다. 몸과 마음의 평화로움을 누리고 직접 체험하면 그만큼 산사 여행의 즐거움도 커진다.

DATA:문의 내소사 063-583-7281, www.naesosa.pe.kr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로 나와 우회전하면 영전 삼거리. 여기서 좌회전하면 곰소항이 나온다. 격포 방향 석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내소사 입구 주차장.

파도치는 갯바위 절서 소원 빌어볼까? 기장 용궁사


앞마당이 바다로 펼쳐지는 용궁사.

한여름 바닷가의 절은 산사(山寺)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경남 기장군 용궁사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꼭 현몽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갯바위의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에서 '희망'을 보기도 하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다짐을 굳히기도 한다. 앞마당이 망망대해인 용궁사는 그 외향에서부터 다른 사찰과 분위기가 다르다. 108계단을 딛고 내려가 바다 위에 걸쳐진 다리를 걸어가다 보면 마치 용궁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용궁사 주변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과 맛집이 몰려 있다. 송정해수욕장이 지척에 있어 해수욕을 즐겨도 좋고 윈드서핑이나 바나나보트 등 신사는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DATA:문의 용궁사 종무소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경부고속도로 구서IC에서 도시고속도로로 갈아탄 후 해운대로 빠져나와, 송정해수욕장을 거쳐 2.7km 더 가면 용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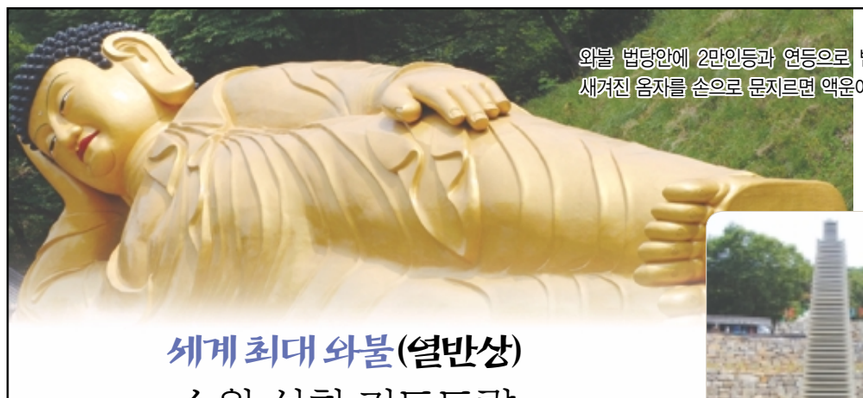

눈이 시리고 가슴이 시린 강천계곡.

시원한 맨발산행 길과 계곡을 품은 순창 강천사

강천산 군립공원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강천산의 계곡을 따라 등산로가 이어지고 기암괴석이 가득 찬 비경을 감상하고 나면 유명 여행지보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게 된다. 굽이굽이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강천계곡에 둘러싸인 강천사는 고려시대에는 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던 큰절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몇 명의 비구니 스님이 절을 지키고 있다. 강천산은 등산보다는 긴 계곡을 따라 왕복 2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찾으면 더욱 좋다. 특히 산길 곳곳에 놓인 벤치는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름다리까지 가는 길은 행복한 산책길. 맨발산행을 즐길 수 있는 황토길이 닦여 있고 길옆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작지만 아름답고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DATA:문의 강천사 063-652-5420, www.sunchang.go.kr
▶88고속도로 순창IC에서 나와 순창읍내에서 담양 방면. 순창 고추장마을 삼거리에서 우회전. 자양리 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 하면 강천산군립공원.

중국명차
보 이 차
각종다구
전문판매(도·소매)
[香茶園]
20여년을 茶道 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향다원은 전통 茶 저장방법으로 남한강변 산속에 저장 보관합니다.
향다원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 이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다원은 전통차예절(茶道)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시 · 교육장 : 경기 이천시 사음동 470-2호 전화 031)634-1329 | 팩스 031)631-1329 | 핸드폰 011-474-1345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사소한 일에도불쑥불쑥 화가 난다면…



화-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 툽텐 초드론 지음 | 미디어윌 펴냄

덥고 짜증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기 십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화 내는 것도 버릇이라 자주 내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몸에 밴 익숙한 반응으로 화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화-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왜 화가 나는지부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직하게, 평화롭게 이야기한다. 읽다보면 시나브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오염된 마음속 거울을 닦고 싶다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 전재성 지음 | 선재 펴냄

'거지 성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인 수행자 페터 노이야르의 한국방문기를 담은 책이다. 페터 씨는 독일 쾰른 대학 숲 속에서 누더기 한 벌만을 걸친 채 하루 한 끼만을 탁발하면서 20여 년을 살아 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은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이 책은 서양의 수행자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인 동시에, 깨달음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휴가지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맑고 향기로운 수행자의 삶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속진에 오염된 마음의 거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한적한 사유의 글맛을 느끼고 싶다면…



동자승 말씀이 기가막혀 | 문형렬 지음 | 도솔 펴냄

이 책은 동자승과 노승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집이다. 불교적 소재와 사유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나이 어린 스님이자 탐욕, 시기, 질투심이 없는 해맑은 동자승을 앞세워 현대인의 삶 방식을 꼬집는다.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변화무쌍해지는 이 시대에 느림, 혹은 뒤로 걷는 것이 오히려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동자승의 행동을 빌어 말한다. 이 책의 동자승은 결국 우리 인간이 닮아야 할 존재인 셈이다. 특히 산사나 계곡 등 한적한 곳에서 맑은 물소리를 배경삼아 읽으면 사유적인 글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도수 스님(정업도량 회주)>**

지금 이순간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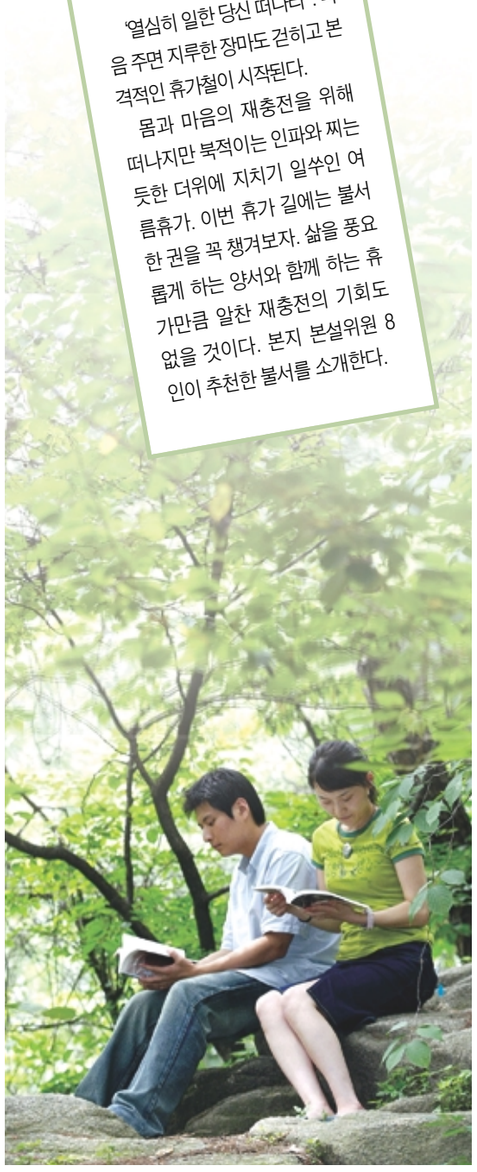
"제가 쓴 책을 직접 추천해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쉬러가는 휴가지에서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해 감히 추천합니다. 마음을 쉬는 비결들을 듬뿍 담아 놓았거든요."

월호 스님은 죽음을 '몸 바꾸기'라고 말한다. 마음의 옷에 불과한 몸뚱이를 잘 갈아입기 위해 우리는 지금 삶에 충실해야 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하게 순간을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만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길입니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추천 佛書 8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음 주면 지루한 장마도 걷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북적이는 인파와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기 일쑤인 여름휴가. 이번 휴가 길에는 불서 한 권을 꼭 챙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께 하는 휴가만큼 알찬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본지 본설위원 8인이 추천한 불서를 소개한다.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고 싶다면…



여행생활자 | 유성용 지음 | 갤리온 펴냄

이 책은 여행가이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자의 내밀한 기록이다. 저자에게 여행이란 그런 것이다. 나를 잊고자 떠났다가 오히려 나를 찾는다.

남루함과 가난 외에는 찾을 것이 없는 티베트 등 외진 세상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저자는 외곬수처럼 사진을 찍어내고 그 곳에서 빛나는 삶의 진실들을 캐낸다. 풍부한 감수성으로 적어 내려간 여행기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최근 해외 출장을 떠날 때 이 책을 꼭 챙겨가는 이유다. **<이우상(대진대 교수)>**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 오래된 미래 펴냄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문명을 등지고 윌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자연주의자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은 빈둥거리는 소로우를 삶의 실패자로 바라봤지만 신학자 블레이크는 그의 위대한 정신을 알아보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그 편지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다.

소로우가 남긴 이 편지글에서 삶의 명철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책 분량도 작고 활자 크기도 커서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윤정(수필가)>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불교가좋다 | 가와이 하야오·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 동아시아 펴냄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편견을 떠나 말하건대, 불교는 분명 '매력'적인 종교다. 역시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두 지성 가와이 하야오(1928~)와 나카자와 신이치(1950~)가 예의 불교의 매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불교와 성(性)의 문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 과학문명의 폐단에 대한 불교적 대안, 부정(否定)을 통한 불교적 성찰, 불교가 가진 현대성 등 그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옳다'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불교가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김징자(언론인)>**

열대우림 속 세상이 궁금하다면…



웰컴투 정글 | 마가릿 D.로우먼 | 갤리온 펴냄

가족이 함께 열대우림을 탐사하며 아나콘다와 피라냐를 만나고, 전채 요리로 귀뚜라미를 먹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정글을 돌아다니느라 두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종종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마존에서 손에 진흙을 묻히고 새를 관찰하고, 직접 실험을 설계하면서 환경과 지구에 대한 넓은 시각과 사고를 창조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불서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휴가지에서 돌려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윤제학(동화작가)>**

서옹 대종사 인가제자, 영흥 선사의 선禪 어록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영흥 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 2007년 5월 발행 / 13,000원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튀는 법거량과 함께 영흥 스님의 오도(悟道)체험 등 구도기가 1인칭 화법으로 서술돼 있다. – 현대불교신문

영흥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맛깔스럽지만 감동있게 전해지는 큰스님들의 법거량은 죽비처럼 등을 후려치는가 하면 때로 감초처럼 목을 축여준다. – 법보신문

근 · 현대 선사 30여 분과 주고받은 생생한 법거량 95개를 책으로 엮었다. 부처님 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 불교포커스

이 책 한 권이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대덕 스님들의 벼락같은 선문답을 통해 누구나 선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 트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주간불교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 아니라, 수행의 지름길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 금강불교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또 다른이가 나를 낳으리



글_박진여 · 최영식
2007년 7월 발행 / 10,000원

화제의 신간!!

영혼을 재테크하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인연으로 대통령이 되었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전생은 이순신, 이성계, 최제우였다.
그리고 영조대왕과 승려 지눌이 이 땅에 다시 온 까닭은?

이 책은 뛰어난 영적능력을 지니고 명상연구에 매진하는 박진여 씨와 최영식 씨가 쓴 글로, 현실속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비관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에 소개된 윤회론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늘의 나침반처럼 그리고 빛나는 북극성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려줘 운명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오늘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영혼을 재테크 하는 것임을 말해 주는 책이다. – 불교 TV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 051) 244-125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블록버스터 미술 기획전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장거리 여행을 가기 어렵거나 주말에 시내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창의력 향상은 물론 갖가지 교육적 효과를 노린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눈길을 끈다.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전'과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전' 등 꼭 챙겨볼만한 대규모 불교 관련 특별 전시 두 개를 소개한다.



스테판 존스의 '스누피' 인형.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 展

예술의 전당 9월 16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주인공 강아지는 누구일까? 정답은 스누피.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한국에 상륙했다. 그들의 출세작인 만화 '피너츠'의 탄생 55주년을 기념하는 순회 전시가 9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0년 별세한 '피너츠'의 작가 '찰스 슐츠'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27인의 상상력 넘치는 작품들로 구성된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전'이다. '행복이란…(Happiness is…)'이라는 주제 아래 스누피의 행복을 나름대로 재해석한 쿠사마 야요이, 후카사와 나오토, 반 시게루 등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의 가장 그럴 듯한 볼거리는 가로로 배치된 다섯대의 50인치 대형 플라스마 TV로 상영되는 팀 랩(Team Lab Inc · 일본)의 비디오 아트 '해피니스 이즈 열반(涅槃), 꽃은 붉다(Happiness is Nirvana, Flower is Crimson)'이다. 가로로 길게 펼쳐지는 전통 두루마리 그림인 '에마키모노(繪卷物)'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꽃은 붉다'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그린 최초의 일본 만화 '초주진부쓰기가(鳥獸人物戱畵)'를 패러디한 것으로, 원작의 등장인물인 개구리, 두루미, 토끼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수묵담채로 펼쳐지는 일본 전래 설화의 풍경 속으로 이질적인 존재인 미국 만화 캐릭터 스누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구성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마치 스누피의 팔상도가 전개돼 있는 듯한 느낌을 줘 불자들이라면 빠트리지 말고 일부러라도 챙겨볼 만 하다.



쿠사마 야요이의 '점박이 스누피'.

세계적 아티스트 27인 작품

일상속 아기자기한 아이템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케 해

일본의 유명한 전시 예술가이자 소설가인 쿠사마 야유이는 점박이 무늬, 음식, 네트 강박증을 지닌 스누피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행복'이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리타 마사후미의 작품이나 주문식 도색 작업의 일종인 커스텀페인팅으로 재탄생한 스누피를 그린 구라시나 마사타카의 작품도 스누피의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 한동안 발길을 머물게 만든다. 이외에도 스누피의 모습을 본뜬 란제리와 목걸이를 비롯해 향수, 홍차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 아기자기한 아이템을 통해 '스누피의 행복'을 보여주게 된다.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수준 높은 작품과 새로운 주제, 그리고 대중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는 세계 순회전시 중 여러 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스누피 전시회 사무국의 안소민씨는 "이번 전시는 찰스 슐츠가 '피너츠'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행복의 힘을 다양한 디자인 작품으로 선보이는 것"이라며 "스누피의 향수가 짙게 깔려 있는 30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미술 감각을 높여주려고 함께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02)464-4266

김주일 기자



3차원 공간을 통해 스누피가 길을 잃고 뻐져든 세계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그린 수묵애니메이션 '행복은 열반, 꽃은 붉다'

'마음의 행복' 전하는 전시회 2題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展'

국립중앙박물관 9월 16일까지

'사경(寫經)'이란 글자 그대로 경전을 베낀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방편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경전은 판각본이건 필사본이건 대체로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그려 넣기도 한다. 글자를 모르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림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 그림을 변상도(變相圖)라고 한다. 특히 사경에 삽입된 삽화를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라도 하는데 대체로 불경 첫 머리에 붙인 그림을 말한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 보광사 본존불 복장(腹藏)에서 1007년 개성 총지사에서 판각한 목판본으로 간행된 '보협인다라니경(약칭 보협인경)'이 공개됐는데 그 첫머리에도 어김없이 변상도가 나온다.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국보 제196호>에도 변상도가 있다. 당나라 '실치난타(實叉難陀, 652-710) 스님이 번역한 <신역화엄경>에 첨부된 사경변상도로서 신라 경덕왕 13~14년(754~755) 무렵 신라 황룡사 승려 연기법사(緣起法師)가 발원해 제작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10권 1축과 44~50권 1축 등 2축인데, 변상도는 1권의 앞에 붙어 있던 것이다.

이를 비롯한 국내외 사경변상도 10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기획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에서 마련한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국보 7점, 보물 17점, 일본의 중요문화재 2점이 포함됐다.

사경변상도 종합전은 그동안 많이 시도됐으나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 생각에만 그쳐왔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1년간 기다려 온 며칠 안되는 여름휴가 만큼이나 달콤하고 귀중할 것 같다. 전시품들은 사경변상도가 고려시대에 왕성했던 이유로 이 시대 작품에 집중돼 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한 <대보적경(大寶積經)>은 1006년 목종 모후인 천추태후가 외척 김치양(金致陽)과 함께 발원한 감지은니금자대장경의 유일한 현존작이다. 이곳 변상도는 세 보살이 연화족좌(蓮花足座)에 서서 산화공양(散花供養)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변상도.

국내외 100여 점 한자리서 전시

국보 · 보물 · 일본 문화재 2점도

고려시대 사경 작품세계 볼 기회

이 외에도 리움미술관 소장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絹索神變眞言經) 권 제13(국보 21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신중합부(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神衆合部),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71(중국 원대. 1291년 작) 등이 선보인다. (02)2077-927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고려시대의 <화엄경> 그림 '감지금자변상금니'.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 미얀마의 종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예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이티사웅 파고다 방문 및 우 삔냐디바 큰스님 친견
(짜익티오: 병마퇴치,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9.14 /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1,540,000원

(포함: 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성지순례 입장료,인천공항세,출국세,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샤브샤브)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예스 굿 투어
tel: 02-365-7747 fax: 02-365-2994

* 예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파도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 설법' 들리나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소리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곧 여름 휴가철이 되면 '쳇바퀴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너도 나도 동해, 남해, 서해의 바다를 찾아 피서를 떠날 것이다.

모처럼의 휴가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른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자. 특히 불자들은 물놀이와 휴식에 머물지 말고 파도소리 들으며 '듣는 성품(聞性)'을 깨닫는 소중한 기연을 만들어 보자.

"바다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覺海性)은 맑고 둥글며, 이 깨달음이 원래로 오묘하거늘, 원래 밝음이 일부러 비치어 대상(所)을 만들고 대상이 세워지니 '반조(返照)의 본성'은 들어가 숨어버리네."(능엄경)

저마다 가진 바다 같은 각성(覺性)을 망각하고 보고 들을 때 '반조하는 성품(照性)'마저 희미해진 우리들. 해조음(海潮音: 파도소리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함) 즉 파도소리를 듣고 본성을 깨닫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원리이며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야 할까. 듣는 성품을 깨닫기 위해 파도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파도소리 관하는 '이근원통' 수행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 즉, 일명 '관음법문(觀音法門)'은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성품'을 깨닫는 도리이다. <능엄경>은 이근(耳根)이 본원(성품)으로 돌아가, 6근의 해탈을 이루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듣는 놈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있게 되었네. 듣는 놈을 돌이켜 소리에서 벗어나면 해탈한 놈을 무엇이라 이름 하랴!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여섯 개의 근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一根返源 六根成解脫)."

여기서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여섯 개의 근(眼耳鼻舌身意)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는 부분이 이근의 원통(圓通)함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즉 6근 가운데서 이근을 집중적으로 계발하면 나머지 5근도 동시에 열린다는 것이 이근원통의 법문이다.그렇다면, '안비설신의(眼鼻舌身意)가 참다운 원통이 되기 어렵고 오직 이근(耳根)원통만이 진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문수보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눈은 담장 밖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입과 코도 다시 그러하며, 몸은 접촉하는 대상과 합해야 앎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은 분잡하여 단서가 없는 것이지만, 이근(耳根)은 담장에 막혀도 음향을 듣고, 멀거나 가깝거나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앎의 5근(眼鼻舌身意)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것(이근)만이 통진실(通眞實)인가 합니다."

소리를 듣고 깨달은 도리는?

<능엄경>에서 열거하는 25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인 '이근원통' 수행법을 '관음법문'이라고 한 까닭은 관세음보살이 행한 수행법이라는 뜻과 소리를 관한다는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근원통 수행은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觀)하는 단계에서, 다음에는 '듣는 놈을 돌이켜 듣는[反聞聞性]' 수행단계로 접어든다. 실제로 선사들 가운데는 이근을 통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성품을 깨달은(돈오)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백장(百丈) 선사 문하에서 어떤 승려가 종소리를 듣고 깨우쳤는데, 백장 선사는 "뛰어나도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입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향엄(香嚴) 선사는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에 견성했고, 원오(圓悟) 선사는 닭이 날개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조선의 서산 대사가 대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오도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특히 마조 선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신라 왕자 출신의 무상 선사는 반문문성(反聞聞性)의 원리를 염불에 응용한 인성염불(引聲念佛:길고 느리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자성(自性)을 깨닫는 염불법)을 제창해 중국 염불선의 근원을 이루기도 했다.

'반문문성(反聞聞性)'과 화두

"듣는 자기의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反聞聞自性]"는 이근원통법은 자성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선(禪)과 다름없다. 그래서인지, 이 '반문문성'의 수행법은 선종에서 '듣는 놈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로 정착되었다.

소위 염불공안법(念佛公案法)이 이것이다. 운서주굉(雲棲株宏) 선사가 <선관책진>에서 주장한 "염불하는 자 이것이 누구인가?"라는 공안이 대표적인 예다. 즉 "듣는 놈 이것이 무엇인고?" 또는 "염불하는 자 이것이 누구인가?" 화두를 돌파할 때 소리를 넘어선, 언어와 생각을 넘어선 본래면목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근원통'이 선(禪)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독자들이 있다면 중국 허운(虛雲) 대사의 법문을 경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는 <참선요지>에서 "관세음보살의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참선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화두를 비춘다(照顧話頭)'는 것은 그대에게 언제나 홀로 빛나는 한 생각을 돌이켜 반조(反照)하는 것이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 역시, 그대에게 언제나 홀로 빛나는 한 생각으로 들음을 돌이키어 자성을 듣도록 하려는 것이다. 회광(回光:빛을 돌이킴)은 곧 반조이며, 불생불멸은 곧 자성(自性)이다."

허운 스님은 "홀로 빛나는 한 생각이 불생불멸하여 소리와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로소 '화두를 비춘다'고 하고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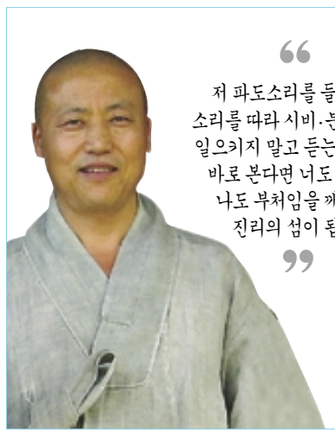
해조음(海潮音)들을만한 바닷가 절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근본도량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남쪽 해안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이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이며, 중국은 보타도(補陀島)의 조음동(潮音洞)이 관음성지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관음도량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기도도량에 얽힌 영험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남해 금산 보리암, 서해 강화 보문사, 동해의 낙산사 홍련암, 여수 향일암 등이 대표적인 관음성지다. 이 밖에도 김제 망해사, 서산 간월암, 강릉 등명락가사, 부산 해동용궁사도 바다를 접한 성지로 꼽힌다.

파도소리를 들을 만한 해수욕장은 많겠지만, 이왕이면 관음성지나 바닷가 사찰에서 이근원통 수행을 해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저 파도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따라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듣는 자를 바로 본다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임을 깨닫는 진리의 섬이 됩니다"

"소리의 空함을 알고, 듣는 자신을 바로 보라"

인·터·뷰 금천선원장 일선 스님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후 송광사 수련원에서 10여년간 수련회를 지도하다가 11년전부터 고흥 거금도에 금천선원을 개원해 수련회를 열고 있는 일선 스님. 오랜 간화선 실참을 바탕으로 스님은 파도 소리를 듣는 성품을 관하여 화두로 들어가는 선(禪) 수행을 구체적으로 일러준다.

"범부들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따라가서 분별을 하고 번뇌를 일으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일체의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소리인 줄 알아서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空)함을 살펴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듣는 성품을 곧바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들음이 자유롭게 되면 보고 맛보고 냄새맡고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 헤아리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운 경계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이근원통법으로서 관음기도의 본질이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 관음정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뭣고?' 화두를 들 수 있다고 한다.

"불안하거나 험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망상이 사라지고 바로 아는(관하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더 나아가면 바로 이뭣고 화두로 들어갑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눈앞에 분명하게 또렷이 홀로 밝아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뭣고?' 화두가 무르익으면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이어진다. 스님은 운전할 때를 예를 들며 '차선일여(車禪一如)'의 공부를 이렇게 설명한다.

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조금도 구애 받지 않고 활발발한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화두)을 들고 가다 보면 그 공덕으로 나타나는 삼매의 낙(樂)이 깊은 잠속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깊은 무명(無明)인 잠까지도 녹여버린다"고 한다. 이근원통법을 참선으로 연결시켜 효과적인 수행지도를 하고 있는 스님은 오늘도 정진을 당부한다.

"저 파도소리를 따라서 곧장 들어가면 소리는 없고 다만 들을 줄 아는 성품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만 가지 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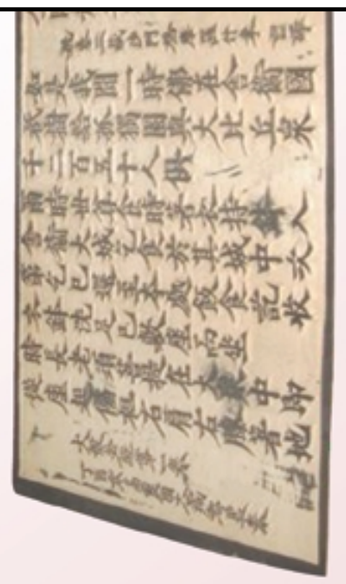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木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月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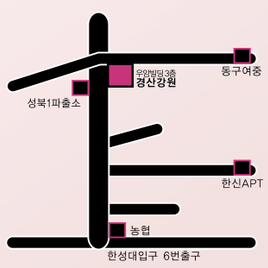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정원 : 15명
◆ 강의 : 金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정원 : 15명
◆ 강의 : 水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치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다.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주시어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 법을 만인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요.

– 금강좌 합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

산사체험(템플스테이)

마음을 방하착하는 순간 더위와 고통이 저 멀리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참가방법
가족과 함께, 직장동료와 함께, 개개인 각각, 부부화합 절호의 기회

체험종목
참선, 명상, 풍류도호흡과 체조, 발우공양, 자연생태교실, 다도

⊙1박 2일
1차 – 7월 21일(토) ~ 22일(일)
2차 – 8월 4일(토) ~ 5일(일)

⊙2박 3일
1차 – 7월 27일(금) ~ 29일(일)
2차 – 8월 10일(금) ~ 12일(일)

법 륜 사 주지 법헌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3
문의 | 032)583-2003, 032)575-2004
010-4413-4268,011-321-4120

건강한 여름 휴가 보내기

미리 미리 챙기면 더욱 즐거운 휴가~

찌는 듯한 무더위도 휴가 떠나는 발길을 잡을 순 없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충분한 준비 없이 휴가를 맞이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여름휴가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점검해보자.

✻ 더위에 지친 몸 비타민 등으로 up

7월 25일은 더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중복(中伏).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단백 · 고칼로리' 보양식품이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미량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각종 제철 과일과 채소, 해초류, 견과류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 가족들을 위해 휴가를 떠날 때도 과일과 견과류 등의 영양간식을 챙겨 보자. 오가피차(태양인) 오미자차(태음인) 산수유차(소양인) 구기자차(소음인) 등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도 더위를 쫓는데 도움을 준다.

✻ 지도 · 구급약 꼭 챙기세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날씨와 기상 상황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한다. 또한 지도도 2가지 정도 챙겨 길을 잃어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길 떠나기 전에 구급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자. 해열제와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소독약, 붕대, 가위 등 간단한 약품을 챙기고, 산이나 외지 등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곳에 갈 때는 응급처치 책자도 준비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약과 모기를 쫓는 스프레이 등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

✻ 내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

피부가 답답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장시간 노출하는 것은 피부 노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남성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을 할 경우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얼굴과 팔, 다리에는 3시간 간격으로 차단제를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등 햇볕을 가려주는 도구도 피부를 위해서라면 챙겨야 할 것들이다. 피부 화상으로 벗겨진 피부를 손으로 뜯으면 흉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부 화상을 입었을 때는 냉수로 20분씩 하루 3~4회 찜질을 한다.

✻ 렌즈 끼고 수영! '위험해요'

수영장이나 온천 등에 다녀온 후 주로 발생하는 것이 유행성 결막염. 대개 7일 이상 지나면 절로 낫긴 하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각막염 등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수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눈물에 의해 씻겨 나가야 할 세균이 렌즈와 눈 사이에 머물며 각종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렌즈를 착용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거나, 수영 후 바로 렌즈를 빼고 세척한다.

수영이나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외이도염에 걸릴 수 있다. 귀의 바깥 통로에 염증이 생길 경우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귀의 물을 빼내기 위해 면봉 등으로 함부로 귀를 후비다가는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물이 들어간 귀를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누워 물이 자연스레 빠지거나 마를 수 있도록 한다.

✻ 땀띠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히

땀띠는 습도와 기온이 높은 장마철에 자주 발생한다. 땀띠는 땀구멍이 막혀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땀샘이 많은 목이나 무릎 뒷부분,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많이 생긴다. 땀띠가 생겼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준다. 샤워할 때마다 비누를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손에서 거품을 내 조금만 사용하도록 한다. 흔히 땀띠가 난 피부에 파우더를 뿌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피부의 땀구멍을 막히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오이를 강판에 갈거나 잘라 땀띠가 난 곳에 발라주면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 졸음운전 '절대금물' 스트레칭 하세요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사전 자동차 점검은 필수.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밤을 새거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가족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충분히 휴식한 후 차에 오르도록 한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1시간 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2시간 마다 한 번씩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맑은 공기를 쐬어준다. 기지개를 크게 켜거나 양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올린 채 옆구리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 해외여행 전 예방주사 필수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고 있다. 불자들 사이에서도 성지순례를 겸한 동남아시아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조건은 바로 풍토병 예방.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므로, 이 지역으로 여행하기 전 말라리아 유행 시기인지를 확인하고 예방약을 먹도록 한다.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2년 가까이 되므로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을 찾아 최근 여행지를 밝히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라면 A형 간염에 주의해야 한다. 예방주사를 맞아 A형 간염의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접종을 못했다면 해외에선 꼭 물을 끓여 마시고 손을 수시로 씻어야 한다.

✻ 비행기 오래 탈 땐 자주 움직여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비행기 좌석의 좁은 공간에서 기압의 변화를 느끼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을 경우 생체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을 말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으므로 종아리나 발이 붓게 된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면 이륙 후 기체가 안전한 상태일 때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 걷고, 발과 발목, 무릎 등을 주물러 준다.

✻ '휴가 후유증'엔 휴식이 최고

편하게 쉬려고 다녀온 휴가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휴가를 마친 뒤 일상에 복귀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른바 '휴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휴가 마지막 날 전까지 마무리 하고 최소 하루 이상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2시간 이상 자는 것은 신체 리듬을 망가뜨리므로 삼가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일상의 재충전이 될 여름휴가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interview

김동조 지누리 대표



닥(한지)섬유란 무엇인가요?

웰빙 천염섬유소재로 황토보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모니아, 포름알데이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소취 및 항균기능이 뛰어난 21세기 유망 섬유신소재입니다.

닥(한지)섬유와 전통 한지는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한지는 주로 수록지나 공예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지의 심미적 효과가 중요하지만, 섬유용 한지의 경우 섬유용으로의 제작이 용이한 작업성과 제직 및 편직에 견딜수 있는 강도와 신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한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한지가 한지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계한지는 그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지사는(Korean paper yarn)는 무엇인가요?

면사 굵기 40수 이내로 내의를 짤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실입니다.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직관 편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량소재로서 성분성이 좋아 청량감과 제습기능, 소취기능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및 염색성, 내 세탁성 또한 우수합니다. 단 섬유이지만 모우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여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사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지는 제작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되지 못하고 쓰임새 또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사의 개발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섬유패션 소재를 비롯하여 홈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커튼, 카펫 등)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 www.jisarang.co.kr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40% 파격 할인 판매!

■기간 7월16일~8월 17일



여름엔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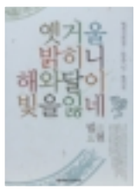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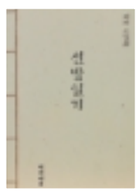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목)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